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이 용 선 연구 위원  
성 명 환 연구 위원  
정 학 균 부연구 위원  
전 혜 미 인턴 연구원

## 연구 담당

이용선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성명환	연구위원	제5장 집필
정학균	부연구위원	제4장, 제5장2절 집필
전혜미	인턴연구원	자료수집 및 분석

## 머 리 말

---

식품물가가 크게 올라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1/4분기 농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7% 높았으며 지난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 높았다. 농수산물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국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채소, 과일 작황의 부진과 지난해 11월 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돈육 공급 감소 등에 기인한다. 한편 가공식품 물가는 국내 농수산물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밀, 옥수수, 대두, 원당 등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수급 여건에 따라 시차를 두고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식품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도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재료별 가격 변동이 가공식품 품목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소비자는 식품물가의 상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아 물가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 물가가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식품물가에 대한 판단과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기간의 과제로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식품물가의 변동과 관련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해주신 식품기업과 소비자가구, 자료협조와 자문을 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공업협회·유가공협회, 원내외 전문가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식품 물가가 최근 크게 변동하였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곡물 등 수입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는 국내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농식품 물가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원가 상승의 요인과 국제원재료 가격 변화의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2장에서 식품 물가와 수입농산물 가격의 동향과 추세를 살펴보고 수입농산물 가격의 변동 요인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가공식품 종류별 원재료 구성비를 조사하였으며, 2011년 1~5월 원재료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원가)에 미친 영향을 식품가공업체 조사결과와 가격지수 변동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11년 상반기 국제원재료 가격 변화의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가격(원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계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가계동향조사결과와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향후 국제원재료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농수산물 물가가 2010년 하반기 이후 크게 올라 2011년 1/4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16.7% 높았다. 수입농수산물 물가는 국제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2011년 1/4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32.5% 높았다. 한편 국내외 농수산물 물가의 영향을 받는 국내 가공식품 물가는 그다지 오르지 않았으나, 올해 5월에는 지난해 대비 6.0% 높게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점차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공식품 중 2005년 이후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 부류는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과채(과일 및 채소)가공품 등이다. 곡물, 원당 등 농산물 수입물가는 크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난 4월까지 크게 올랐으며 최근에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가격은 변동성이 강하다. 국제농산물 가격은

세계 생산과 재고가 모두 감소한데다 중국과 인도의 수요는 증가하고 에탄올 등 에너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한편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주요 가공식품은 밀가루, 설탕, 유지류, 유제품,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배합·이용하여 제조·가공된다. 식품가공업체 15개소에 대해 관련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원재료비가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수준이며 품목별 주요 원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났다. 품목별 원재료비의 총원가 비중, 원재료별 가격의 지난해 대비 등락률, 품목별 원재료 구성비를 이용하여, 지난 1~5월간 원재료가격이 변동(상승)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가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추정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품목별 원가는 지난해 대비 오렌지주스, 육가공(햄류), 식용유가 20% 이상, 커피믹스, 라면, 청량음료는 10~20%, 빙과류, 라면, 제빵, 과자 등은 5~10%의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곡물,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2010년 하반기에 비해 옥수수가 43%, 대두는 21%, 밀은 14%, 원당은 10% 상승하였다.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1년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물가(원가)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1~11% 추가적으로 상승(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분 및 당류 10.8%, 제분 9.9%, 유지류 6.6% 등의 순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4분기 식료품에 대한 가계소비지출액은 2010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가계소비지출액 증가율의 3.9%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비중은 최하소득계층인 1분위가 18.6%로 2010년 동기보다 0.5%포인트 증가하였다. 품목군별 가계소비량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음료류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외식 소비를 크게 줄인 반면, 곡물 및 곡물가공품, 음료, 유지류, 채소·해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품의 소비량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월 초 수도권 거주자 3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의 68.7%는 올해(1~4

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하며, 62.0%가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고통수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이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보다 컸고, 소비지출액은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식품, 과자·당류식품,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조미료·기타식품에 대한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격 및 매장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광고전단(49.0%), 인터넷/스마트폰(42.3%), 매장광고(37.7%), TV/라디오(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식품의 가격이 인상될 때 48.7%의 소비자가 ‘인상된 식품의 구입을 감소시키고 타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며, ‘5~10% 미만’으로 인상될 때에 변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도 국제곡물 가격은 변동하는 가운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원 재료 가격의 상승 변동 현상은 국내 가공식품의 수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가계지출에도 혼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은 이러한 식품가격의 변동요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일정기간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안(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용),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대책 강화, 공정거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지속 등 국내 가공산업의 경쟁구조를 강화하는 방안,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가격정보 제공방안, 국제곡물 및 국내 가공식품 수급에 대한 관측·모니터링 실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

### Effect of Rising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on Food Prices and Countermeasures

Recently, food prices have been highly fluctuating. In particular,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g., cereals, used as raw materials for processed food have been soaring. This is predicted to put pressure on Korea's processed food pric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trend of changing agricultural food prices, analyze the primary factors of rising prices of raw materials for processed food fueled by rising prices of imported raw materials and the effect of changing global raw material prices on Korea's processed food prices, and present a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that could be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s.

Chapter 2 of this report will describe the trend and changes in food prices and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to review the primary factors behind the changing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Chapter 3 will describe the proportions of raw materials by major processed food types to estimate the effect of rising raw material prices on the processed food prices (the cost)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to May 2011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the food price index. The effect of changing global raw material prices in the first half of 2011 on Korea's processed food prices (the cost) in the second half will be analyzed with the Input-Output Table. Chapter 4 will describe the effect of rising food prices on consumer households and the psychology thereof by investigating consumers and household expenditure. Chapter 5 will describe the prospect of supply and demand and prices of global raw materials in the future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that could be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s.

Price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Korea have risen since the

second half of 2010 to be 16.7% higher than last year in the first quarter of 2011. The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ere 32.5% higher than last year's in the first quarter of 2011 due to soaring prices of global agricultural products. The prices of Korea's processed food affected by the prices of Korea's and glob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id not rise much, but were 6.0% higher than last year's in May this year, showing a faster speed of rise lately. Exemplary processed foods showing highly fluctuating prices since 2005 include processed cereal and meat products, oil,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The pric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g., cereals and sugar, continued to rise sharply from the second half last year to April this year and the prices are still at high levels. The pric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s highly fluctuating. The price of global agricultural products is rising as both production and stock decreased while there is more demand from China and India and the demand for energy, e.g., ethanol, is increasing. In the meantime, highly fluctuating production due to abnormal weather is contributing to highly fluctuating prices.

Major processed food are produced and processed with the mixed raw materials of flour, sugar, oil and fat products, dairy products, livestock products, etc. An investig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of 15 food processing companies shows that the cost of raw material accounted for 40~60% of the total cost of producing processed food, and the types and proportions of major raw materials were identified for each item. By u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raw material cost to total cost for each item, fluctuation rates of price of each raw material as compared to last year, and raw material composition ratio of each item, it was estimated how much the cost of processed food increased as raw material prices changed (rose) from January to May. It was shown that the potential rate of increase in the production cost due to increase in the price of raw materials for each item is more than 20% for orange juice, processed meat products (ham) and vegetable cooking oil, more than 10% for instant coffee mix, instant noodles and soft drinks, and more than 5% for ice pops, instant

noodles, breads, and confectionery as compared to last year.

The global prices of raw materials such as cereals and sugar increased in the first half of 2011 compared to the second half of 2010: 43% for corn, 21% for beans, 14% for wheat, and 10% for suga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Input-Output Table, it is predicted that such rising global raw material prices will lead the processed food prices (cost) of Korea to an additional increase of 1 to 11% as compared to the last first half. In particular, it is predicted that the biggest pressure to increase price will be put on starch and sugar (10.8%), followed by flour (9.9%) and oil and fat products (6.6%).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early May, 2011 on 300 residents in the capital region to analyz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rising product prices on consumption. The response was that 68.7%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price of food and non-alcoholic drinks increased the most this year (January to April) and 62.0% said the rising prices of food and non-alcoholic drinks was psychologically most burdensome.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over all items was higher in the low-income groups whose income is below 2 million won than the group whose income is above 4 million won. Consumption expenditure showed that the low-income group exhibited higher increase rates of spending than the high-income group with respect to the purchase of raw and processed products of vegetables, seaweed, meat, confectionery and sugar, grains, fruits, fat and oil, spices and other foods.

In spite of the price rise, exemplary food products that showed either an increase or almost no change in consumption were raw and processed products of grains, marine products, dairy products and roe, vegetables, seaweed, sugar and confectionery, coffee and tea, and other drinks including juic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 for coffee and tea and other drinks which are not essential food items reflects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resulting from an increase in income and changing preferences.

Consumers obtained price and shop information from leaflets (49.0%), the Internet/smart phone (42.3%), shop advertisement (37.7%), and TV/radio (21.7%). It was investigated that consumers reduced the purchase of a food

product and bought a similar product from a different company when the price increased by 5 to 10%.

It is predicted that global grain prices will continue to rise while fluctuating, thu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supply and demand and price of Korea's processed food and causing confusion in the consumer's expenditur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s should take measures and develop schemes to stabilize the supply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 alternative crops, revitalize the related processing industry, enhance food assistance for lower income groups, tighten the monitoring of food companies' actions on prices, develop an observation system for global cereals and processed food, etc. Meanwhile, stabilized supply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ensured through flexible application of quota tariffs, introduction of a public reserve system, use of the futures market, and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etc.

Researchers: Yong-Sun Lee, Meong-Hwan Sung, Hak-Kyun Jeong,

Hye-Mi Jeon

E-mail Address: yslee@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	3
3. 연구 내용 .....	5
4. 연구 방법 .....	6

### 제2장 식품 물가와 수입원재료 가격 동향

1. 식품물가 동향 .....	7
2. 수입원재료 가격 동향 .....	14

### 제3장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영향

1. 가공식품 원재료 구성 및 수입 동향 .....	21
2.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추정 .....	24

### 제4장 식품물가 상승의 소비자 가계와 심리에 대한 영향

1.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지출 변화 .....	33
2.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 .....	40

### 제5장 대응 방향

1. 전망 .....	53
2. 대응 방향 .....	56

부록 1: 식음료/외식 소비량 변동률 추정 .....	63
2: 소비자 설문조사표 .....	68

참고 문헌 .....	75
-------------	----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품목부류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	9
표 2-2. 품목부류별 생산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	10
표 2-3. 품목부류별 물가 상승률 비교 .....	11
표 2-4. 물가 상승 수준별 품목 비교 .....	13
표 2-5. 주요 원료농산물 품목별 국제가격 추이 .....	15
표 2-6. 수입물가지수 추이 .....	17
표 2-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18
표 2-8. 중국과 인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	19
표 2-9. 중국과 인도의 곡물 소비량 .....	19
표 2-10.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 전망 .....	20

### 제3장

표 3-1. 품목별 원재료비의 총원가 대비 비중 .....	22
표 3-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	23
표 3-3. 가공식품 원재료별 2010년 대비 가격상승률 .....	25
표 3-4. 원재료별 가격변화율 적용 기준 .....	26
표 3-5. 가공식품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공통원재료만 고려 시) .....	27
표 3-6. 가공식품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공통원재료 증가율을 전체 원재료 증가율로 환산 시) .....	28
표 3-7. 국제농산물 가격 10% 변동에 따른 식품물가 영향 계수 .....	30
표 3-8. 국제농산물 가격의 국내 가공품 가격에 대한 영향과급시차 .....	30
표 3-9. 2011년 상반기 국제농산물 가격의 2010년 하반기 대비 상승률 .....	31

표 3-10. 2011년 상반기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의 하반기 식품물가 파급영향	31
--	----

## 제4장

표 4-1. 소비지출/식료품 지출액 변화	34
표 4-2. 소득계층/부류별 소비지출액 비중 변화	35
표 4-3.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전체 소비자)	37
표 4-4. 식음료/외식 소비량 변동률(소득계층별)	38
표 4-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1
표 4-6. 소비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도	42
표 4-7.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	43
표 4-8. 소득별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1순위 응답 기준)	44
표 4-9. 식음료, 외식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도	45
표 4-10. 식음료, 외식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	46
표 4-11. 소득별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	46
표 4-12. 식음료/외식 관련 소비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48
표 4-13. 소득별,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수준	49
표 4-14. 소득별, 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50
표 4-15.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 인상 시의 소비자 반응	51

## 제5장

표 5-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54
표 5-2. 향후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	54
표 5-3. 장기 주요 국제곡물 수급 전망	56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식품의 소비자 및 수입 물가 추이(2005=100) .....	8
그림 2-2. 세계 식량가격 지수 .....	14
그림 2-3. 주요 농산물 품목별 국제가격 추이 .....	15
그림 2-4.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가격 추이 .....	16
그림 2-5. 세계 원유가격 추이 .....	20

### 제3장

그림 3-1.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	24
-------------------------------	----

### 제4장

그림 4-1. 가격 상승한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액 변화 .....	47
그림 4-2. 가격 및 매장 정보 습득 매체(중복응답) .....	51
그림 4-3. 가격 인상 수준별 대체제품으로의 변경 의향 .....	52

### 제5장

그림 5-1. 국제 유가 및 달러/유로 환율 전망 .....	55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식품물가가 근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2011년 1~3월 농수산물 소비자물가가 2010년 동기 대비 16.7% 높았으며,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도 지난 5월에는 2010년보다 6.0% 높았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채소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며, 11월 말 구제역 발생이후에는 돈육 등 축산물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였음.
  
- 가공식품은 가계의 식품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가격 동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 특히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과 수입가공식품의 가격이 최근 급등하였으며, 이는 국내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입농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2%, 수입가공식품 물가는 18.7% 상승함. 수입농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입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함. 밀, 대두, 옥수수뿐 아니라 원당, 커피원두, 주스원액, 돈육 등이 크게 오름.

-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은 대체로 세계적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 감소, 국제 통화량의 증대, 달러화 약세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물가당국)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체감하기 쉬운 식품 물가에 주목하고 소비자단체와 더불어 식품업계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급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곡물을 비롯하여 주요 수입원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요인이나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정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 등 물가대책 수립을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종류별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식품(업종) 물가 상승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수행을 요청하였음.
  - \* 근거: 농식품부 공문(1.31) 및 이후 물가관련회의
- 따라서 이 연구는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 요인을 규명하고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과 식품 물가의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선행 연구

- 허신행·김창길(1989)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농산물 가격변동의 물가과급영향을 분석하였음. 오치주·이철현(1994)은 물가지수 편제를 검토하고 물가관리 및 지수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 김병률 외(2008)와 한석호 외(2011)는 밀, 대두,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상승의 농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함. 김태훈·김배성(2009)은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국내 곡물가공품 가격의 반영 시차를 회귀분석을 통해 계측하였으며, 김성훈 외(2009)는 사례 업체의 공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곡물가공품의 원가 구조와 유통 경로를 분석하였음.
- 박우규 외(1998)는 한국의 거시물가모형을 구조방정식과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구축하고 추정하였으며 부문별 물가변동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이인권 외(2008)는 한국의 물가 구조와 국내외 가격차이를 평가하고 가격차이 해소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부적 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소비품목의 지출에 관한 연구, 포괄적 차원에서 지출패턴을 제시하는 전소비품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관련된 소비지출 패턴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연구 등이 있음.
- 김숙향, 김혜선(2004)은 선형화된 준이상수요체계(LA/AIDS)모델을 이용하여 총소비지출액 변화 및 소비지출 비목별 물가변화가 자체비목의 지출비율 변화 및 타 비목의 지출비율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주거광열물가, 피복비물가, 교육비물가, 교통통신물가

의 변화가 소비지출의 상충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물가정책 입안 시 이러한 비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소연경(2001)은 IMF 이전과 이후의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필수적인 소비지출 항목인 식료품의 경우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삭감의 비율이 더 컸으며, 피복 및 신발, 교육, 교양 오락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 항목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삭감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관리교육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성립(2007)은 시계열 회귀분석과 SUR 모형 추정을 통하여 음식물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소득 및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을 측정하였음.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외식 및 배달 음식 소비지출 증가는 육류, 채소류, 어개류 등 대체재의 물가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식품 물가 상승의 소비자 심리 및 가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 연구는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태도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됨<sup>1</sup>.

<sup>1</sup> 이 외의 소비관련 연구로 김기욱, 이승신(1990)은 횡단분석과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소비지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은 총소비지출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총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목별 백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지출패턴을 바꾸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층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한편 황은애, 이승신(1999)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생활양식 변수가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 연구는 생활양식변수가 가계소비지출에, 그리고 부채, 월평균저축액, 거주 지역 변수가 소비지출 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김정현, 최현자(2003)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비목의 소득탄력성을 구하고, 각 세부 비목

○ 선행연구의 한계

- 농축산물 가격 중심으로 그간 소비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함.
- 3대 곡물(밀, 대두, 옥수수)의 영향에 한정되어 급등하는 원당 등 다른 원재료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
- 식품 물가 상승의 소비자 가계 및 심리에 대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조사·분석 연구가 미흡함.

### 3. 연구 내용

- 연구내용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분야와 장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식품 물가와 수입농산물 가격의 동향과 추세를 살펴보고 수입농산물 가격의 변동 요인을 검토하였음.
- 제3장에서는 주요 가공식품 종류별 원재료 구성비를 조사하였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원가)에 미친 영향을 식품가공업체 조사결과와 가격지수 변동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제원재료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과 시차를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계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가계지출조사결과와 함께 분석하였음.

---

별 소득탄력성을 근거로 소비지출비목을 재분류하였음. 이 연구는 도시가계의 소비에 반영된 욕구 및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가 존재함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향후 국제원재료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4. 연구 방법

- 제표분석
  - 식품 부류별 물가지수: 통계청, 한국은행
  - 생산(제조)비용: 통계청, 기업공시자료, 조사자료
  - 가계지출: 통계청
- 산업연관분석
  - 원재료가격상승의 파급영향 계측
-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300가구(소득수준별 표본할당)
  - 조사내용: 식품물가의 심리적 고통수준, 식품종류별 가격민감도, 가격·매장정보 습득·이용방식, 물가대책관련 의견 등
- 식품업체 설문조사
  - 조사대상: 주요 식품업체 15개소
  - 조사내용: 취급품목별 원재료 구성비 및 총원가대비 비중, 원료조달과정 및 재고기간 등

## 제 2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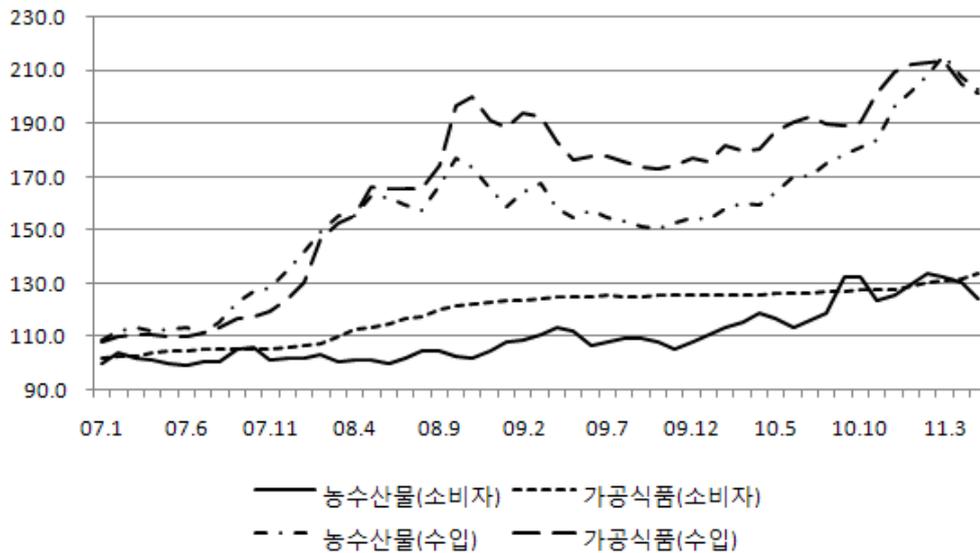
### 식품 물가와 수입원재료 가격 동향

#### 1. 식품물가 동향

##### 1.1. 부류별 식품물가 동향

- 국내 농수산물 물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크게 올라 2011년 1/4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16.7% 높았음. 이는 근래 최고 수준임.
-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농수산물 물가는 2008년에 이어 201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함. 국제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2011년 1/4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32.5% 높았음.
- 국내 가공식품 물가는 그다지 오르지 않았으나 올해 5월에는 지난해 대비 6.0% 높아 최근 들어 점차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2011년 1/4분기에 정점에 다달았던 농수산물 물가와 수입 농식품 물가는 2/4분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가공식품 물가는 국내외 농식품 물가를 후행하며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2-1. 식품의 소비자 및 수입 물가 추이(2005=10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05년 이후 식품 가격 중 변동이 심한 부류는 채소·특용작물,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어개, 조미료, 음료, 과일 등임.
  - 즉 가공식품에서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과채(과일 및 채소)가공품 등
- 소비자물가 중 변동성(변이계수와 진폭률로 측정)이 가장 높은 부류는 채소·해조류로 나타나며, 변동성이 가장 낮은 부류는 곡물과 외식으로 나타남.
  - 채소·해조류: 변이계수 17.2, 진폭률 1.2
  - 곡물류: 변이계수 5.8, 진폭률 0.2
  - 외식: 변이계수 5.8, 진폭률 0.2

표 2-1. 품목부류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단위: 2005=100, %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진폭률
곡물	104.5	6.1	5.8	0.22
육류	109.4	10.0	9.1	0.37
어개	112.6	14.6	12.9	0.49
낙농품	112.8	13.4	11.8	0.34
유지	112.3	14.9	13.3	0.44
과실	99.3	10.4	10.5	0.49
채소·해조	116.1	20.0	17.2	1.20
과자·당류식품	120.5	17.9	14.8	0.53
조미료·기타 식품	114.4	14.4	12.5	0.52
차	116.9	12.1	10.3	0.43
음료	116.7	14.7	12.6	0.45
외식	107.9	6.3	5.8	0.21

주 1) 2005년 이후 2011년 5월까지 월별 자료로 계산함.

2) 소비자물가지수에는 가공식품이 일부만 분리되어 작성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 중 변동성이 가장 큰 부류는 갑각류, 가장 작은 부류는 주류로 나타남. 가공식품에서는 육가공품과 유지류가 변동성이 큰 반면 주류의 변동성은 낮음.
- 지난 1~5월 가격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상승률이 10% 이상 높았던 부류는 과실 및 과채가공품, 기타식료품, 어개 및 수산가공품, 축산물 등.
  - 채소는 1/4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20% 정도 높았으나 2/4분기에는 크게 하락하여 지난해보다 낮아짐.
  - 곡물가공품은 2/4분기 들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상승함.
  - 10% 이상 상승한 부류 중 소비자물가는 과실, 조미료·기타 식품, 어개 등이며, 생산자물가 부류는 과실, 약용작물, 조미료·기타 식품, 과실 및 채소가공품, 기타식료품, 축산물, 곡물, 수산물가공품 등임.

- 5~10% 미만 상승한 부류 중 소비자물가는 육류, 채소·해조, 곡물, 음료, 과자·당류식품 등이며, 생산자물가는 곡물가공품, 전분 및 당류, 선어류, 비알콜성음료, 육가공품, 채소 등임.

표 2-2. 품목부류별 생산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단위: 2005=100, %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진폭률
곡물	96.3	6.8	7.1	0.29
채소	120.5	32.2	26.7	2.31
과실	101.6	21.2	20.8	1.24
특용작물	128.4	37.0	28.8	2.24
약용작물	96.3	11.3	11.7	0.67
축산물	105.4	12.7	12.1	0.63
선어류	123.1	30.1	24.4	1.54
갑각류	65.5	40.6	62.0	9.98
조개류	100.2	31.3	31.2	2.33
염건어류	93.2	5.8	6.2	0.37
해조류	109.3	9.5	8.7	0.36
육가공품	117.4	25.2	21.5	0.73
수산물가공품	111.2	12.8	11.5	0.41
과실 및 채소가공품	114.1	11.5	10.1	0.49
유지	125.5	25.1	20.0	0.69
낙농품	112.8	11.4	10.1	0.32
곡물가공품, 전분 및 당류	122.5	17.5	14.3	0.54
빵, 과자 및 면류	112.6	11.3	10.0	0.27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113.8	11.6	10.2	0.31
기타 식료품	110.4	9.2	8.3	0.33
주류	102.4	3.8	3.7	0.11
비알콜성음료	112.0	8.5	7.6	0.36

주: 2005년 이후 2011년 5월까지 월별 자료로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표 2-3. 품목부류별 물가 상승률 비교

물가 상승률	부 류 명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10% 이상	과실, 조미료·기타 식품, 어개	과실, 약용작물, 조미료·기타 식품, 과실 및 채소가공품, 기타식료품, 축산물, 곡물, 수산물가공품
5~10% 미만	육류, 채소·해조, 곡물, 음료, 과자·당류식품	곡물가공품, 전분 및 당류, 선어류, 비알콜성음료, 육가공품, 채소
0~5% 미만	외식, 낙농품, 차, 유지	해조류, 염건어류, 낙농품, 빵, 과자 및 면류,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유지, 주류
0% 이하		특용작물, 조개류, 갑각류

주: 2011년 1~5월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기준.

자료: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

## 1.2. 식품 품목별 가격 동향

-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진 품목은 조미어포·오징어채, 두부, 즉석식품·냉동만두, 설탕·빙과, 당면, 건조채소, 김치 등임.
- 15% 이상의 상승한 품목
  - 소비자물가 기준: 조미어포, 두부, 냉동만두, 설탕, 젓갈, 건조채소, 김치, 보조사료 등
  - 생산자물가 기준: 오징어채, 빙과, 고춧가루, 고추장, 두부, 당면, 설탕, 즉석식품, 카레 등
- 10~15% 미만 상승한 품목
  - 소비자물가 기준: 쇼트닝, 전통차, 아이스크림, 치즈, 고추장

- 생산자물가 기준: 보리차, 마요네즈, 물엿, 소금, 콜라 등
  
- 5~10% 미만 상승한 품목
  - 소비자물가 기준: 된장, 배합사료(비육우용), 콜라, 정제소금, 사이다, 병과, 배합사료(낙농용), 커피음료, 껌, 배합사료(양계용), 배합사료(양돈용), 주스, 마가린, 포장육, 케이크, 과당, 과실 및 채소음료, 커피크림, 과일잼, 커피믹스, 도시락, 시리얼식품 등
  - 생산자물가 기준: 과일주스, 사이다, 배합사료(비육우용), 사탕, 소시지, 맛김, 케첩, 햄, 배합사료(낙농용), 빵, 간장, 비스킷, 배합사료(양계용), 된장, 배합사료(양돈용), 과실통조림, 혼합음료, 과실 및 채소음료 등

표 2-4. 물가 상승 수준별 품목 비교

물가 상승률	품 목 명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15% 이상	조미어포, 두부, 냉동만두, 설탕, 젓갈, 건조채소, 김치, 보조사료	오징어채, 빙과, 고춧가루, 고추장, 두부, 당면, 설탕, 즉석식품, 카레
10~15% 미만	쇼트닝, 전통차, 아이스크림, 치즈, 고추장	보리차, 마요네즈, 물엿, 소금, 콜라
5~10% 미만	된장, 배합사료(비육우용), 콜라, 정제소금, 사이다, 빙과, 배합사료(낙농용), 커피음료, 껌, 배합사료(양계용), 배합사료(양돈용), 주스, 마가린, 포장육, 케이크, 과당, 과일 및 채소음료, 커피크림, 과일잼, 커피믹스, 도시락, 시리얼식품	과일주스, 사이다, 배합사료(비육우용), 사탕, 소시지, 맛김, 케첩, 햄, 배합사료(낙농용), 빵, 간장, 비스킷, 배합사료(양계용), 된장, 배합사료(양돈용), 과일통조림, 혼합음료, 과일 및 채소음료
0~5% 미만	물엿, 가공육, 고춧가루, 인스턴트커피, 식빵, 햄, 어육연제품, 위스키, 옥배유, 소시지, 국수, 맛김, 간장, 밀가루, 전분, 스낵과자, 비스킷, 참치통조림, 청주, 간고등어, 고기통조림, 대두유, 케첩, 가미우유	떡, 시리얼식품, 젓갈, 위스키, 인스턴트커피, 냉동식품, 북어채, 식빵, 케이크, 양념장, 과일주, 밀가루, 국수, 커피크림, 참기름, 맛살, 커피, 약주, 생선통조림, 담배(수입), 이유식, 치즈, 생수, 혼합조미료, 스낵과자, 탁주, 녹차, 초코파이, 청주, 아이스크림, 어묵, 분유
0% 이하	참기름, 조제분유, 유산균발효유, 초콜릿, 사탕, 떡, 혼합조미료, 홍삼, 인삼가공식품, 수프, 주정, 소주, 탁주, 맥주, 민속주, 생수, 두유, 담배, 과자빵, 탈지분유, 라면, 백색우유, 부침가루, 글루타민산소다, 혼합소스	담배(국산), 발효유, 두유, 유산균발효유, 초콜릿, 맥주, 육류통조림, 껌, 식용유, 라면인삼가공식품, 부침가루, 우유, 소주, 글루타민산소다

주: 2011년 1~5월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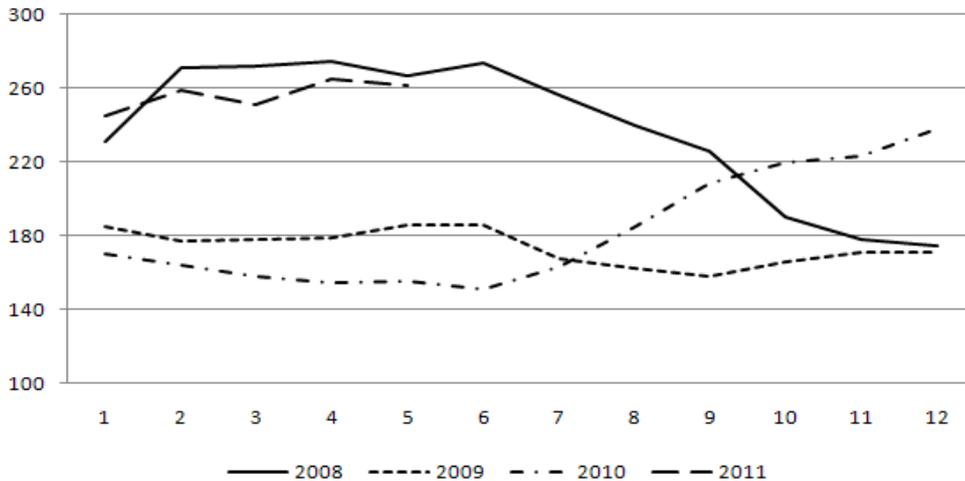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

## 2. 수입원재료 가격 동향

### 2.1. 세계 농산물 가격 동향

- 2011년 상반기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2000년대 최고 수준인 2008년 수준에 근접함.
  -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2009년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150~18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1년 상반기 세계식량가격 지수는 260 내외로 2008년 수준과 비슷해짐.

그림 2-2. 세계 식량가격 지수



자료: FAO

- 2011년 1~5월 국제 밀 가격은 2010년 동기 대비 59~63% 높고, 옥수수수는 100% 내외, 대두는 40~45%, 원당 가격은 24~57% 높았음. 국제 원료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4월을 정점으로 정체되기 시작함.

표 2-5. 주요 원료농산물 품목별 국제가격 추이

단위: 달러/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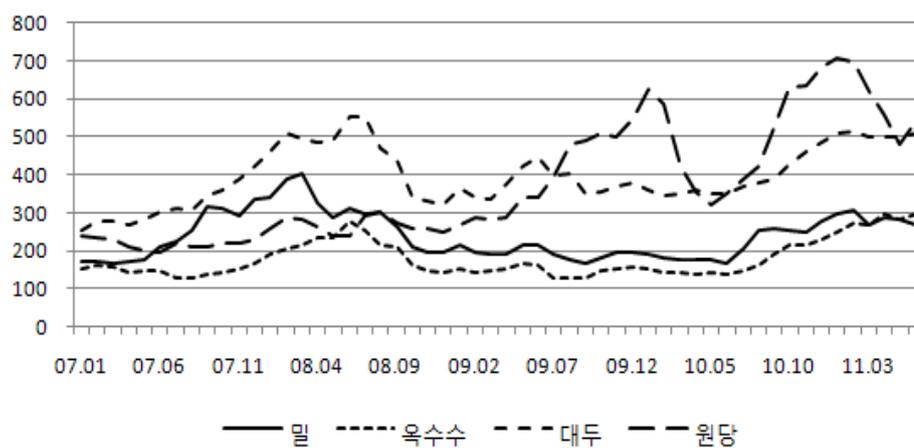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I	II	III	IV	연간	I	4	5
밀	234.4	293.6	194.7	182.5	171.8	239.6	259.5	213.3	290.1 (59.0)	286.1 (63.4)	281.5 (60.8)
옥수수	147.2	207.5	147.2	145.9	139.8	166.1	220.9	168.2	263.7 (80.7)	296.2 (112.5)	284.2 (98.1)
대두	317.2	453.5	378.2	350.8	351.7	380.1	456.9	384.9	507.4 (44.6)	501.7 (40.3)	498.7 (42.9)
원당	218.2	266.7	394.5	545.1	341.7	444.6	650.5	495.5	675.6 (23.9)	560.1 (57.7)	481.3 (49.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그림 2-3. 주요 농산물 품목별 국제가격 추이

단위: 달러/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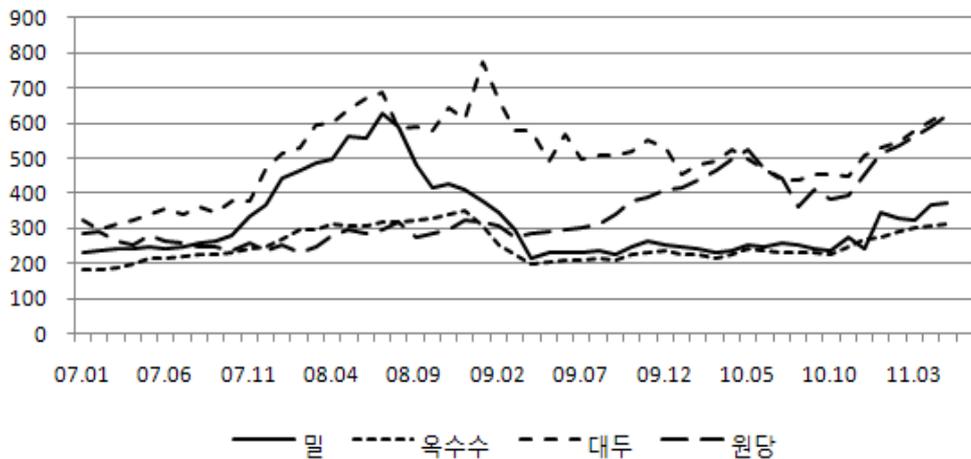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 2.2. 원재료 수입가격 동향

-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0년 4/4분기 이후 원재료 수입가격도 상승하였으며, 특히 올해 크게 올랐음.
- 밀 수입가격: (2010년 3/4분기) 249.8달러/톤 → (4/4분기) 250.1  
→ (2011년 1/4분기) 333.7
  - 옥수수 수입가격: (2010년 3/4분기) 230.1달러/톤 → (4/4분기) 248.6  
→ (2011년 1/4분기) 290.4
  - 대두 수입가격: (2010년 3/4분기) 442.7달러/톤 → (4/4분기) 468.2  
→ (2011년 1/4분기) 551.4
  - 원당 수입가격: (2010년 3/4분기) 403.3달러/톤 → (4/4분기) 410.7  
→ (2011년 1/4분기) 536.6

그림 2-4.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제 농산물가격의 가격 상승과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수입물가도 환율의 영향과 함께 국제 농산물 가격과 시차를 두고 비슷한 변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1~5월의 주요 원료농산물 수입물가의 2010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밀(달러가격)의 증감률이 8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원당, 대두, 옥수수가 34~38% 수준임.

표 2-6. 수입물가지수 추이

단위: 2005=100, %

	2010					2011			2011/2010 등락률			
	I	II	III	IV	연간	I	4	5	I	4	5	1~5월
밀 (달러)	123.5	120.1	157.2	191.1	148.0	221.3	227.0	223.9	79.2	84.1	85.8	81.5
밀 (원화)	138.0	136.4	181.5	211.3	166.8	242.0	240.9	236.8	75.4	79.1	73.1	75.7
대두 (달러)	207.4	206.3	226.0	261.6	225.3	280.0	300.5	286.1	35.0	46.0	38.8	37.9
대두 (원화)	231.8	234.5	261.3	289.2	254.2	306.3	318.8	302.7	32.1	42.1	29.3	33.5
옥수수 (달러)	146.5	144.7	157.7	183.6	158.1	196.4	193.3	193.0	34.1	33.3	33.8	33.9
옥수수 (원화)	163.7	164.5	182.4	203.1	178.4	214.9	205.2	204.3	31.3	29.7	24.7	29.6
원당 (달러)	206.8	203.8	190.6	252.7	213.5	303.2	281.7	260.8	46.6	32.7	22.0	38.8
원당 (원화)	231.0	231.2	220.4	279.5	240.5	331.6	298.8	275.9	43.5	29.1	13.6	34.4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수입물가지수

- 수입농산물의 가격은 변동성이 강함. 주요 원료농산물 수입물가의 변동성은 국내의 가공식품은 물론 국내 농수산물에 비해서도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원당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대두 가격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원당 가격(원화기준)의 변이계수는 37.5%, 진폭률은 1.93
  - 대두 가격(달러기준)의 변이계수는 16.4%, 진폭률은 0.92

## 2.2.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 및 변동 원인

- 국제농산물 가격은 세계 생산과 재고가 모두 감소한데다 중국과 인도의 수요는 증가하고 에탄올 등 에너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 한편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됨.

### □ 세계 곡물 생산 및 재고 감소

-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작황이 부진하여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21억 7,853만 톤으로 추정됨. 반면, 소비량은 2.0% 증가한 22억 4,069만 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하여 2010/11년도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2010/11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3.2%p 하락한 19.0%로 전망

표 2-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2008/09	2009/10	2010/11 (추정)	2009/10 대비	2008/09 대비
생산량	2,242.44	2,233.95	2,187.67	-2.4	-2.9
소비량	2,158.54	2,198.64	2,237.59	2.0	3.8
교역량	285.64	290.06	272.51	-5.9	-4.7
기말재고량	453.04	487.00	437.09	-12.7	-6.0
기말재고율	21.0	22.2	19.5		

주: 기말재고율=기말재고량/소비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2011.6

### □ 중국과 인도의 식량 수요 증가

- 중국과 인도는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2010/11년도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이 각각 1억 880만 톤, 1억 6,200만 톤, 6,885만 톤으로 전망되며,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의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옥수수와 대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세계 곡물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0/11년도 인도의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도 각각 전년보다 5.4%, 22.0%, 14.0% 증가한 8,244만 톤, 1,830만 톤, 965만 톤으로 추정됨. 2010/11년 기준 세계 전체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28.7%, 21.5%, 30.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표 2-8. 중국과 인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kg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닭고기	7.4	7.7	7.9	8.6	9.0	9.1	9.3
	돼지고기	31.2	34.5	35.0	32.3	35.1	36.5	37.1
인도	닭고기	1.1	1.7	1.8	2.0	2.2	2.2	2.3

자료: USDA, PSD Online.

표 2-9. 중국과 인도의 곡물 소비량

단위: 천 톤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중국	밀	101,500	102,000	106,000	105,500	107,000	108,800
	옥수수	137,000	145,000	149,000	152,000	159,000	162,000
	대두	44,440	46,120	49,818	51,435	59,430	68,850
인도	밀	69,980	73,477	76,423	70,924	78,201	82,435
	옥수수	14,200	13,900	14,200	17,000	15,000	18,300
	대두	7,795	7,546	9,580	8,475	8,461	9,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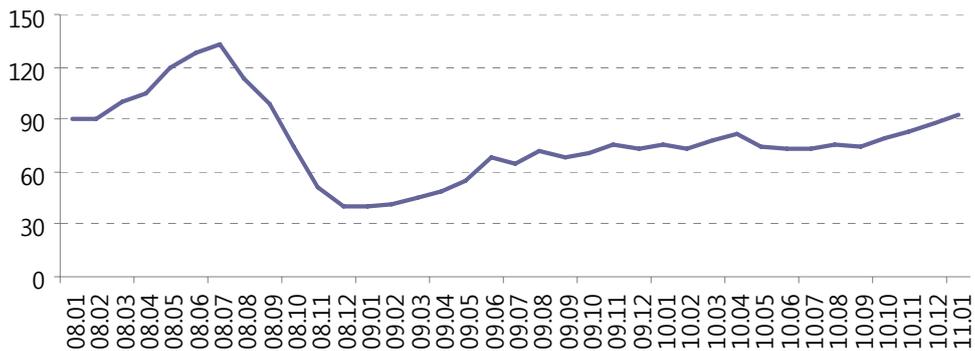
자료: USDA, PSD Online.

□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 국제유가는 해상운임의 변동요인으로 국내 곡물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2010년 상반기 세계 원유가격은 큰 폭의 상승없이 안정세를 보임. 그러나, 2011년 1월 평균 국제 유가는 배럴당 92.4달러로 2010년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그림 2-5. 세계 원유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EIA

-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세계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은 1,006억 리터로 2010년 대비 8.8% 증가하고, 바이오디젤 소비량의 경우 231억 리터로 2010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0.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 전망

단위: 백만 리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바이오에탄올	40,325	49,204	63,807	77,182	82,136	92,580	100,697
바이오디젤	4,881	7,936	11,567	16,374	18,382	21,001	23,143

자료: OECD

## 제 3 장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영향

## 1. 가공식품 원재료 구성 및 수입 동향

- 가공식품은 여러가지 원재료를 배합·가공하여 식품이 되므로 원재료에 대한 원가 비중이 높음.
  - 원재료비가 총원가<sup>2</su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40~60% 수준임.
  - 가공식품 매출 대비 원재료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특히 급등)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품목 유형별 원재료비 비중, 주요 원재료 구성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대표적 업체들에게 설문 조사하였음. 원재료비 비중은 대체로 39~60%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원재료비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 식용유 60%, 오렌지주스 59%, 제빵 51%, 가공유 50%,
  - 원재료비 비중이 50% 미만인 품목: 라면 49%, 육가공 45%, 과자류·청량음료·빙과류 40%, 커피믹스 39%

<sup>2</sup> 총원가는 원·부재료비,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경비를 나타냄.

표 3-1. 품목별 원재료비의 총원가 대비 비중

단위: %

품목	제빵	과자류	라면	커피 믹스	음 료		가공유	빙과류	육가공 (햄류)	식용유
					오렌지 주 스	청량 음료				
원재료 비 중	51	40	48.5	39	59	40	50	40	45	60

## ○ 품목별 주요 원재료 구성

- 제빵: 유제품, 밀가루, 계란, 유지류, 설탕
- 과자류: 밀가루, 설탕류, 유지류, 유제품류, 코코아
- 라면: 밀가루, 팜유, 플레이크, 전분
- 커피믹스: 커피원두, 커피크림, 설탕
- 오렌지주스: 오렌지농축액, 설탕
- 청량음료: 액상과당, 설탕
- 가공유: 원유, 분유, 설탕
- 빙과류: 시유, 가공버터, 혼합탈지분, 설탕, 초코류, 물엿, 생크림, 야자유
- 육가공: 국산후지, 국산지방, 수입전지, 수입지방
- 식용유: 대두유

## ○ 이용선 외(2008)와 최지현 외(2009)에 의하면, 국내 가공식품의 수입원료의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전분 및 당류(전분당), 유지류 등 소재식품의 해외원료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음

표 3-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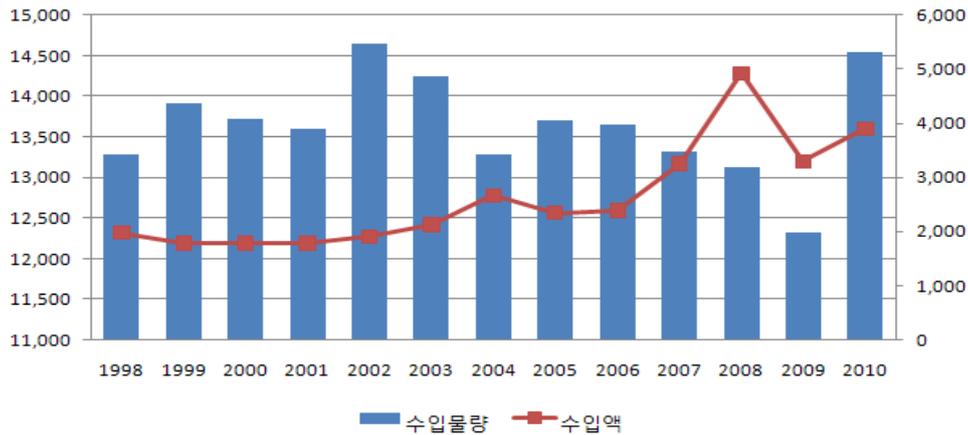
품목명		원재료별 비중
제빵		유제품 36.7, 밀가루 26.5, 계란 14.3, 유지류 12.2, 설탕 10.2
과 자 류	제과	밀가루 30.0, 설탕류 24.4, 유지류 19.5, 유제품류 4.9, 계란류 2.4
	초코제품	밀가루 26.0, 설탕 13.7, 코코아 13.7, 물엿 12.3, 쇼트닝 6.8, 분유 5.5
	비스킷	밀가루 31.7, 유지 및 쇼트닝 20.7, 유제품류 16.5, 설탕 14.3, 전란액 5.2, 코코아 1.4
라면		밀가루 59.5, 팜유 15.9, 플레이크(건조채소) 20.2, 전분 4.5
커피믹스		커피원두 51.9, 커피프립 26.1, 설탕 16.9
음 료	오렌지주스	오렌지농축액 77.4, 설탕 22.6
	청량음료	액상과당 60.0, 설탕 10.0
가공유		원유 45.1, 분유 10.7, 설탕 4.0
빙과류		시유 25.0, 가공버터 18.0, 혼합탈지분 14.0, 설탕 10.0, 초코류 9.0, 물엿 5.0, 생크림 4.0, 야자경화유 3.0
육가공(햄류)		국산후지 52.1, 국산지방 6.2, 수입전지 27.2, 수입지방 14.5
식용유		대두유 100.0

주: 기타 비공통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비중의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함. 한편 수입 금액은 곡제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 증가 추세를 나타냄.

그림 3-1.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주: 주요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쌀 포함(쌀은 MMA 물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 2.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추정

-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2011년 상반기의 상승 요인 추정과 하반기 파급영향 추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2.1. 2011년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원가) 상승요인 추정

-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물가(원가) 상승요인을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에 의거하여 추정함.
  - ①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 구성(비중)을 표준화함.
  - ②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은 수입원재료가 통관가격(관세청) 기준, 국내산

원료는 생산자물가(한국은행)를 기준으로 함. 2010년 평균가격과 2011년 1~5월 평균가격을 대비하여 계산하고 이를 ①에서 구한 원재료별 비중을 곱하여 합계함. 단 수입가격은 달러 표시 금액을 원화 표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③ ①에 의거하여 원재료별 총원가 대비 비중을 구하여 합산함.  
 ④ ②에서 구한 품목별 원재료가격 상승률과 ③에서 구한 원재료비 원가 대비 비중을 곱하여 원료비 상승에 의한 총원가 상승요인을 산출함.
- 주요 가공식품의 원가가 지난 1~5월간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상승 압력)을 받았는지 추정하고자 함. 우선 2011년 1~5월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별 평균 가격의 2010년 대비 등락률은 <표 3-3>과 같음.

표 3-3. 가공식품 원재료별 2010년 대비 가격상승률

단위: %

품목명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제빵	유제품 30.4, 밀가루 2.5, 계란 22.4, 유지류 25.6, 설탕 27.1	
과자류	제과	밀가루 2.5, 설탕류 27.1, 유지류 25.6, 유제품류 30.4, 계란류 22.4
	초코제품	밀가루 2.5, 설탕 27.1, 코코아 30.6, 물엿 4.9, 쇼트닝 25.6, 분유 30.4
	비스킷	밀가루 2.5, 유지 및 쇼트닝 25.6, 유제품류 30.4, 설탕 27.1, 전란액 22.4, 코코아 30.6
라면	밀가루 2.5, 팜유 109.0, 플레이크(건조채소) 19.7, 전분 2.4	
커피믹스	커피원두 60.1, 커피크림 6.8, 설탕 27.1	
음료	오렌지주스	오렌지농축액 58.5, 설탕 27.1
	청량음료	액상과당 39.5, 설탕 27.1
가공유	원유 10.0, 분유 30.4, 설탕 27.1	
빙과류	시유 0.2, 가공버터 39.6, 혼합탈지분 18.8, 설탕 27.1, 초코류 30.6, 물엿 4.9, 생크림 51.5, 야자경화유 128.7	
육가공(햄류)	국산후지 109.0, 국산지방 197.7, 수입전지 37.5, 수입지방 17.2	
식용유	대두유 37.0	

- 주 1) 가격상승률은 환율 등락률을 반영(즉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  
 2) 2010년 1~5월 평균에 대한 2011년 1~5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

- 원재료별 가격변화율을 적용한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는 수입단가,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원재료는 생산자물가, 기타 수입과 국내생산에 일정 비율을 의존하는 원재료는 기타 기준을 적용함.
- 수입단가 기준 원재료: 가공버터, 대두유, 분유, 생크림, 쇼트닝, 수입전지, 수입지방, 야자경화유, 오렌지농축액, 유제품, 유지류(쇼트닝), 커피원두, 코코아(초코류), 팜유, 혼합탈지분
  - 생산자물가 기준 원재료: 밀가루, 계란(전란액), 물엿, 설탕, 원유(시유), 커피크림, 플레이크(건조채소), 전분
  - 기타 기준 원재료: 국산지방/국산후지((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액상과당(수입, 생산 평균 적용)

표 3-4. 원재료별 가격변화율 적용 기준

기준 물가	원재료명
수입단가(관세청)	가공버터, 대두유, 분유, 생크림, 쇼트닝, 수입전지, 수입지방, 야자경화유, 오렌지농축액, 유제품, 유지류(쇼트닝), 커피원두, 코코아, 팜유, 혼합탈지분
생산자물가(한국은행)	계란, 물엿, 밀가루, 설탕, 원유, 전분, 커피크림, 플레이크(건조채소)
기타	국산지방/국산후지((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액상과당(수입, 생산 평균 적용)

- 품목별 원가 상승률 추정 결과, 지난 1~5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원가는 다음과 같이 품목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표 3-5).
- 20% 이상 증가: 육가공(햄류), 오렌지주스, 식용유
  - 10~20% 증가: 커피믹스, 라면, 제빵, 청량음료
  - 5~10% 증가: 빙과류, 과자류

표 3-5. 가공식품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공통원재료만 고려 시)

단위: %

품목명		원재료에 의한 원가상승 요인		
		원재료가격 상승률	원료비의 원가 대비 비중	총원가 상승 요인
제빵		20.9	0.510	10.66
과 자 류	제과	14.4	0.400	5.75
	초코제품	12.6	0.400	5.02
	비스킷	16.6	0.400	6.63
라면		22.9	0.485	11.10
커피믹스		37.5	0.390	14.64
음 료	오렌지주스	51.4	0.590	30.34
	청량음료	26.4	0.400	10.58
가공유		8.9	0.500	4.43
빙과류		21.4	0.400	8.57
육가공(햄류)		81.7	0.450	36.78
식용유		37.0	0.600	22.23

- 주 1) 수입단가(관세청,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것), 생산자물가(한국은행), 업  
계조사(원재료 구성 및 총원가 대비 비중)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2) 2010년 1~5월 평균에 대한 2011년 1~5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

- 이상은 품목별 공통원재료만을 포함하고 기타 개별원재료는 제외하여 추계  
한 것이므로 모든 원재료를 포함한다면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공  
통원재료비 증가율을 전체 원재료에 적용하여 환산하여 원가 상승 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3-6>과 같음.

- 이에 따르면 원재료 구성이 다양한 과자류나 가공유의 원가 상승 요인이  
증가함.

표 3-6. 가공식품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공통원재료 증가율을 전체 원재료 증가율로 환산 시)

단위: %

품목명		원재료에 의한 원가상승 요인		
		원재료가격 상승률	원료비의 원가대비 비중	총원가 상승 요인
제 빵		20.9	0.510	10.67
과 자 류	제과	17.7	0.400	7.08
	초코제품	16.1	0.400	6.44
	비스킷	18.4	0.400	7.38
라 면		22.9	0.485	11.09
커피믹스		39.6	0.390	15.43
음 료	오렌지주스	51.4	0.590	30.34
	청량음료	37.8	0.400	15.11
가 공 유		14.8	0.500	7.40
빙 과 류		24.4	0.400	9.74
육가공(햄류)		81.7	0.450	36.78
식 용 유		37.0	0.600	22.23

- 주 1) 수입단가(관세청,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것), 생산자물가(한국은행), 업계 조사(원재료 구성 및 총 원가 대비 비중)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2) 2010년 1~5월 평균에 대한 2011년 1~5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

- 한편 원재료비 요인 이외에도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부재료비<sup>3</sup>와 인건비도 각각 1% 내외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sup>3</sup> 포장재 등의 부재료비에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 골판지 박스, 그라비아인쇄 등이 포함됨.

## 2.2.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2011년 하반기 식품물가 파급영향 추정

-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수입원재료에 의존하는 가공식품의 생산원가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6개월 내외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이 절에서는 2011년 상반기 국제 원료농산물 가격 변화가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 2011년 상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원가 증가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2007년 산업연관표를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함<sup>4</sup>.
-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는 수입부문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분리하고 있어 관측 시점에서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임.
-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 10% 상승에 따른 업종별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분 6.2%, 제당 5.2%, 배합사료 4.0%등의 순으로 영향이 큼.
  - 밀 가격 10% 상승은 제분과 빵·과자·면류에 각각 5.8%, 1.0%의 상승 요인이 됨.
  - 옥수수 가격 10% 상승은 전분 및 당류 2.5%, 배합사료 2.2%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됨.
  - 대두 가격 10% 상승은 유지 및 식용유 2.3%, 배합사료 1.4%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됨.
  - 원당 가격 10% 상승은 제당 5.2%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됨.

<sup>4</sup> 농업관측센터 모형·곡물팀(한석호·승준호)의 도움을 받음.

표 3-7. 국제농산물 가격 10% 변동에 따른 식품물가 영향 계수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체분	5.82	0.36	0.02	0.00	6.20
전분 및 당류	0.05	2.46	0.00	0.03	2.54
빵, 과자 및 국수류	1.02	0.12	0.07	0.13	1.34
유지 및 식용유	0.01	0.41	2.34	0.01	2.77
제당	0.00	0.00	0.00	5.24	5.24
육류 및 육가공품	0.14	0.81	0.04	0.03	1.02
낙농품	0.05	0.29	0.02	0.06	0.42
배합사료	0.37	2.16	1.39	0.06	3.98
계	7.46	6.61	3.88	5.56	23.51

주: 산업연관표 2007을 이용하여 산출

- 국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은 수입계약 체결, 수입을 위한 현지 및 해상 수송 기간, 그리고 국내 가공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영향 파급에 시차가 발생함. 평균적으로 6개월 내외의 시차가 발생함.

- 해외 산지의 밀이 수입되어 국내 밀가루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입 과정에 5개월, 국내 가공 판매 과정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총 5~6개월의 파급시차가 발생.

표 3-8. 국제농산물 가격의 국내 가공품 가격에 대한 영향파급시차

농산물	가공품	국제가격 → 수입가격	수입가격 → 가공품가격	총파급시차
밀	밀가루	5개월	1개월 이내	5~6개월
밀	빵	5개월	2~4개월	7~9개월
대두	식용유	3개월	1개월 이내	3~4개월
원당	설탕	4~5개월	1개월	5~6개월
옥수수	배합사료	4개월	1개월 이내 (산란계용 3개월)	4~5개월 (산란계용 7개월)
대두박	배합사료	3개월	1개월	4개월

자료: 김태훈·김배성(2009)

- 국제 원자재가격은 2011년 상반기에 6개월 전인 2010년 하반기에 비해 추가로 10~43% 상승하였음. 특히 옥수수가 크게 상승함.  
 - 옥수수 43%, 대두 21%, 밀 14%, 원당 10% 상승함.

표 3-9. 2011년 상반기 국제농산물 가격의 2010년 하반기 대비 상승률

농산물	2010년 6월	2010년 하반기 평균(a)	2011년 상반기 평균(b)	2010하반기 대비 상승률(b/a)
밀	165	249	285	14
옥수수	136	194	278	43
대두	348	419	505	21
원당	348	548	602	10

- 2011년 상반기 국제원료농산물 가격이 6개월 전인 2010년 하반기에 비해 추가로 10~43% 상승함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상반기대비 1~1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전분 및 당류 10.8%, 제분 9.9%, 유지 및 식용유 6.6%, 제당 5.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2011년 상반기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의 하반기 식품물가 파급영향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제분	8.25	1.56	0.04	-	9.85
전분 및 당류	0.07	10.67	-	0.03	10.77
빵, 과자 및 국수류	1.45	0.52	0.14	0.13	2.24
유지 및 식용유	0.01	1.78	4.84	0.01	6.64
제당	0	0	0	5.23	5.23
육류 및 육가공품	0.20	3.51	0.08	0.03	3.82
낙농품	0.07	1.26	0.04	0.06	1.43
배합사료	0.52	9.37	2.88	0.06	12.83
계	10.6	28.7	8.0	5.6	52.8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 분석은 산업 간의 가격파급 경로와 각 산업부문의 원가상승압력을 파악할 수 있어 물가분석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석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sup>5</sup>.
  - 첫째, 동 분석은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하는 정태분석으로서 최대한의 물가파급효과(변동압력)만을 계측할 수 있을 뿐 가격변동의 파급시차 파악은 곤란함.
  - 둘째, 과거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수입 및 생산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투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셋째, 투입비용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의 파급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투입비용의 감소 시에는 증가 시보다 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음.

---

<sup>5</sup> 김철민·이진면(2008) 참조

## 제 4 장

### 식품물가 상승의 소비자 가계와 심리에 대한 영향

#### 1.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지출 변화

##### 1.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2010년 1/4분기의 월평균 기준 2인 이상 가구당 236만 3,000원이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의 12.7%(30만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표 4-1>.
  - 소득 5분위 계층별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 구성비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은 18.1%를 차지한 데 비해,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은 10.1%를 차지하여 저소득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음.
- 2011년 1/4분기 식료품에 대한 가계소비지출액은 2010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가계소비지출액 증가율의 3.9%를 훨씬 능가함.

표 4-1. 소비지출/식료품 지출액 변화

단위: 원, %

	명목			실질		
	2010, 1/4	2011, 1/4	변화율	2010, 1/4	2011, 1/4	변화율
식료품· 비주류음료	299,935 (12.7)	325,023 (13.2)	8.4	261,723 (12.7)	271,531 (13.2)	3.7
주류·담배	26,097 (1.1)	26,382 (1.1)	1.1	22,772 (1.1)	22,040 (1.1)	-3.2
의류·신발	138,203 (5.8)	151,389 (6.2)	9.5	120,596 (5.8)	126,474 (6.2)	4.9
주거·수도 ·광열	287,755 (12.2)	297,083 (12.1)	3.2	251,095 (12.2)	248,190 (12.1)	-1.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78,735 (3.3)	84,110 (3.4)	6.8	68,704 (3.3)	70,267 (3.4)	2.3
보건	143,952 (6.1)	160,533 (6.5)	11.5	125,613 (6.1)	134,113 (6.5)	6.8
교통	240,884 (10.2)	270,287 (11.0)	12.2	210,195 (10.2)	225,804 (11.0)	7.4
통신	137,181 (5.8)	138,585 (5.6)	1.0	119,704 (5.8)	115,777 (5.6)	-3.3
오락·문화	134,780 (5.7)	133,557 (5.4)	-0.9	117,609 (5.7)	111,576 (5.4)	-5.1
교육	392,789 (16.6)	375,060 (15.3)	-4.5	342,748 (16.6)	313,333 (15.3)	-8.6
음식·숙박	281,785 (11.9)	280,471 11.4	-0.5	245,886 (11.9)	234,312 (11.4)	-4.7
기타상품· 서비스	200,489 (8.5)	211,147 (8.6)	5.3	174,947 (8.5)	176,397 (8.6)	0.8
계	2,362,585 (100.0)	2,453,627 (100.0)	3.9	2,061,592 (100.0)	2,049,814 (100.0)	-0.6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주: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 2010년 1/4분기 품목별 소비지출액 비중을 2011년 1/4분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소비지출액이 커지 것으로 나타남. 모든 소비계층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됨<표 4-2>.

표 4-2. 소득계층/부류별 소비지출액 비중 변화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0, 1/4	'11, 1/4								
식료품· 비주류음료	18.1	18.6	14.9	14.9	13.2	13.6	12.1	12.3	10.1	11.1
주류·담배	1.6	1.5	1.5	1.4	1.2	1.2	1.1	1.1	0.7	0.7
의류·신발	4.4	4.4	5.4	5.4	5.7	6.2	5.9	6.3	6.6	7.0
주거·수도 ·광열	19.5	18.7	15.0	14.4	12.2	12.9	10.8	10.9	9.6	9.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2.5	3.2	2.3	2.8	2.9	2.7	3.4	3.1	4.3	4.6
보건	8.8	10.0	6.4	6.2	5.5	6.5	6.2	5.8	5.4	6.1
교통	7.1	7.1	9.4	12.3	11.2	10.4	9.5	10.7	11.4	12.2
통신	7.1	6.5	7.1	6.6	6.5	6.3	5.8	5.7	4.4	4.4
오락·문화	4.1	4.3	5.0	4.7	5.7	4.9	5.7	5.7	6.6	6.3
교육	10.3	10.9	12.7	12.3	15.2	14.5	18.6	16.9	19.8	17.6
음식·숙박	9.8	8.5	12.2	11.2	12.5	12.4	12.6	12.4	11.7	11.3
기타상품· 서비스	6.8	6.5	8.1	7.9	8.2	8.4	8.4	9.2	9.4	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1.2. 식품품목별 소비지출액

- 품목별 2011년 1/4분기 실질 지출액을 2010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곡물의 경우 신선은 감소하였으나 가공품의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고, 육류의 경우 가공품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신선품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어개류, 채소·해조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유지류, 외식비는 감소하였음<표 4-3>.
- 2011년 1/4분기 식음료/외식 관련 품목 소비량의 2010년 동기 대비 변동률을 추정함. 소비량 변동은 2010년 대비 2011년 소비량 증감률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물가변동률을 제함으로써 도출하였음.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음<표 4-4>.
- 품목군별 가계소비량은 곡물 및 곡물가공품과 음료류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소비량에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품목은 곡물, 어개, 채소·해조, 주스 및 기타음료 등이었음. 이러한 품목들은 필수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기호식품인 커피 및 차의 경우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음에도 최근 수요의 증가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반면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한 품목은 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조미료·기타식품 등임.
- 저소득층은 외식 소비를 크게 줄인 반면, 곡물 및 곡물가공품, 음료, 유지류, 채소·해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품의 소비량을 늘린 것으로 추정됨.

표 4-3.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전체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6,096	16,216	0.7	14,045	13,547	-3.5
곡물가공품	16,454	17,808	8.2	14,358	14,877	3.6
빵 및 떡류	19,601	21,265	8.5	17,104	17,765	3.9
곡물	52,151	55,289	6.0	45,507	46,190	1.5
육류	48,934	48,642	-0.6	42,700	40,637	-4.8
육류가공품	8,893	10,178	14.4	7,760	8,503	9.6
육류	57,827	58,820	1.7	50,460	49,140	-2.6
신선수산동물	23,495	25,316	7.8	20,502	21,150	3.2
염건수산동물	6,925	8,345	20.5	6,043	6,972	15.4
기타 수산가공	5,451	6,240	14.5	4,757	5,213	9.6
어개	35,871	39,901	11.2	31,301	33,334	6.5
유제품 및 알	28,502	29,776	4.5	24,871	24,876	0.0
유지류	3,166	3,060	-3.3	2,763	2,556	-7.5
과일 및 과일가공품	36,240	39,361	8.6	31,623	32,883	4.0
채소 및 채소가공품	29,299	34,409	17.4	25,566	28,746	12.4
해조 및 해조가공품	4,949	5,219	5.5	4,318	4,360	1.0
채소·해조	34,248	39,628	15.7	29,885	33,106	10.8
당류 및 과자류	19,579	22,616	15.5	17,085	18,894	10.6
조미식품	6,724	7,659	13.9	5,867	6,398	9.1
기타식품	8,611	9,324	8.3	7,514	7,789	3.7
조미료·기타식품	15,335	16,983	10.7	13,381	14,188	6.0
커피 및 차	6,494	7,949	22.4	5,667	6,641	17.2
주스 및 기타음료	8,596	9,547	11.1	7,501	7,976	6.3
외식비	270,440	267,655	-1.0	235,986	223,605	-5.2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표 4-4. 식음료/외식 소비량 변동률(소득계층별)

단위: %

품목	계층별	지출액 증감률	물가변동률	소비량 변동률	탄력성
곡물 및 가공품	전체	1.5	0.4	1.1	3.0
	1분위	2.1		1.7	4.5
	2분위	3.8		3.4	8.9
	3분위	-0.3		-0.7	-1.8
	4분위	-0.9		-1.3	-3.5
	5분위	3.2		2.8	7.3
육류 및 가공품	전체	-2.6	3.1	-5.7	-1.8
	1분위	-2.8		-5.9	-1.9
	2분위	-2.1		-5.2	-1.7
	3분위	-4.5		-7.6	-2.5
	4분위	0.9		-2.2	-0.7
	5분위	-4.3		-7.4	-2.4
어깨류	전체	6.5	7.2	-0.7	-0.1
	1분위	13.8		6.6	0.9
	2분위	7.9		0.8	0.1
	3분위	4.8		-2.4	-0.3
	4분위	-1.7		-8.8	-1.2
	5분위	9.0		1.9	0.3
유제품 및 알	전체	0.0	-2.8	2.8	-1.0
	1분위	-4.1		-1.4	0.5
	2분위	1.0		3.8	-1.4
	3분위	-4.5		-1.7	0.6
	4분위	1.2		3.9	-1.4
	5분위	3.7		6.4	-2.3
유지류	전체	-7.5	-4.0	-3.4	0.8
	1분위	7.2		11.2	-2.8
	2분위	-8.2		-4.2	1.0
	3분위	-10.7		-6.7	1.7
	4분위	-8.6		-4.5	1.1
	5분위	-12.1		-8.0	2.0
과일 및 과일가공품	전체	4.0	26.3	-22.3	-0.8
	1분위	5.2		-21.1	-0.8
	2분위	7.7		-18.6	-0.7
	3분위	5.1		-21.2	-0.8
	4분위	0.4		-25.9	-1.0
	5분위	3.5		-22.9	-0.9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2) 탄력성은 소비량변동률을 물가변동률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표 4-4. 식음료/외식 소비량 변동률(소득계층별, 계속)

단위: %

품목	계층별	지출액 증감률	물가 변동률	소비량 변동률	탄력성
채소·해조	전체	10.8	13.7	-2.9	-0.2
	1분위	13.2		-0.5	-0.0
	2분위	18.1		4.4	0.3
	3분위	9.4		-4.2	-0.3
	4분위	4.5		-9.2	-0.7
	5분위	10.3		-3.4	-0.2
당류 및 과자류	전체	10.6	-1.6	12.2	-7.8
	1분위	7.4		9.0	-5.8
	2분위	18.1		19.6	-12.6
	3분위	7.6		9.2	-5.9
	4분위	11.1		12.7	-8.1
	5분위	9.1		10.6	-6.8
조미료· 기타 식품	전체	6.0	14.3	-8.3	-0.6
	1분위	6.5		-7.9	-0.5
	2분위	11.7		-2.6	-0.2
	3분위	3.1		-11.2	-0.8
	4분위	6.1		-8.3	-0.6
	5분위	4.2		-10.1	-0.7
커피 및 차	전체	17.2	-3.5	20.6	-6.0
	1분위	5.6		9.0	-2.6
	2분위	18.8		22.3	-6.4
	3분위	12.4		15.9	-4.6
	4분위	19.3		22.7	-6.6
	5분위	24.9		28.3	-8.2
주스 및 기타음료	전체	6.3	1.8	4.6	2.6
	1분위	20.5		18.7	10.5
	2분위	13.5		11.7	6.6
	3분위	6.4		4.6	2.6
	4분위	1.8		0.1	0.0
	5분위	0.4		-1.4	-0.8
외식비	전체	-5.2	-1.4	-3.8	2.7
	1분위	-13.2		-11.8	8.3
	2분위	-2.2		-0.8	0.6
	3분위	-2.1		-0.6	0.5
	4분위	-2.0		-0.6	0.4
	5분위	-9.0		-7.6	5.4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2) 탄력성은 소비량변동률을 물가변동률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2.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

- 소비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 2.1. 소비자조사 개요

- 식품물가의 심리적 고통수준과 식품종류별 가격민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은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 식품물가의 심리적 고통수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액 변화 등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기혼여성 300명(소득수준별 표본할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6~12일이었음.
- 설문조사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chi^2$  검정을 이용함.
- 설문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0대 10.0%, 30대 45.0%, 40대 30.0%, 50대 이상 15.0%이며, 학력은 고졸 이하 52.6%, 대졸 이상 47.3%를 차지함. 거주 지역은 서울이 50.7%이며, 경기 34.7%, 인천 14.7%를 차지함.
-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 10.3%, 100만 원대 15.0%, 200만 원대 38.7%, 300만 원대 19.7%, 400만 원대 10.0%, 500만 원 이상 6.3%를 차지하였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는 2인 16.7%, 3인 31.0%, 4인 36.3%, 5인 이상 16.0%를 차지하였음.

-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변화에 대해 감소 28.0%, 이전과 동일 17.3%, 증가 54.7%를 차지하였음.

표 4-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비중
연령	20대	30	10.0
	30대	135	45.0
	40대	90	30.0
	50대 이상	45	15.0
거주지역	서울	152	50.7
	경기	104	34.7
	인천	44	14.7
소득	100만 원 미만	31	10.3
	100만~200만 원 미만	45	15.0
	200만~300만 원 미만	116	38.7
	300만~400만 원 미만	59	19.7
	400만~500만 원 미만	30	10.0
	500만 원 이상	19	6.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3
	고등학교 졸업	154	51.3
	대학교 졸업 이상	142	47.3
가족수	2인	50	16.7
	3인	93	31.0
	4인	109	36.3
	5인	38	12.7
	6인 이상	10	3.3
가격 많이 오른 식료품 소비지출액 변화	감소	84	28.0
	이전과 동일	52	17.3
	증가	164	54.7
합 계		300	100.0

## 2.2. 조사결과 분석

### 2.2.1.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

- 올해 1~4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순위로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 16.0%, 교육 3.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식 순위를 가장 평균한 결과, 식료품·비주류음료가 특히 많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 22.4%, 외식·숙박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6. 소비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도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식료품·비주류음료	68.7	15.7	8.3	40.9
주거 및 수도·광열	16.0	35.0	16.3	22.4
교육	3.0	6.3	18.3	6.7
외식·숙박	3.0	10.7	16.7	7.8
보건의료	2.7	8.0	9.0	5.5
의복·신발	2.3	9.3	8.0	5.6
주류·담배	2.0	2.3	4.0	2.4
교통	1.0	3.7	3.0	2.2
통신	1.0	4.7	6.3	3.1
가구집기·가사용품	0.3	4.0	7.0	2.7
교양·오락		0.3	3.0	0.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평균치는 1순위에 가중치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여 평균함.

-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에 대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순위로 높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 20.3%, 교육 8.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고통수준 순위를 가장 평균한 결과,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

에 대한 고통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 23.3%, 교육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을 제외하고 물가상승 인식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따라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고통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7.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식료품·비주류음료	62.0	20.3	7.7	39.1
주거 및 수도·광열	20.3	28.3	22.3	23.3
교육	8.7	10.7	16.0	10.6
외식·숙박	2.3	7.7	13.3	5.9
교통	2.0	3.7	5.7	3.2
의복·신발	1.3	7.7	8.7	4.7
통신	1.3	6.3	6.0	3.8
보건의료	1.0	8.3	10.7	5.1
교양·오락	0.7	0.7	1.3	0.8
가구집기·가사용품	-	3.7	5.0	2.1
주류·담배	0.3	2.7	3.3	1.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평균치는 1순위에 가중치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여 평균함.

-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1순위 응답)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상승에 대해 200만 원 미만인 소비자의 경우 64.5%가 심리적 고통수준이 컸다고 응답한 데 비해, 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의 경우 63.9%가 컸다고 응답하여 극빈층 내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고통수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주거 및 수도·광열의 경우 200만 원 미만인 소비자는 18.6%로 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의 14.6%보다 심리적 고통수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교육의 경우 고소득층이, 기타의 경우 저소득층이 심리적 고통수준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남.

표 4-8. 소득별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수준(1순위 응답 기준)

단위: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교육	기타	전체
100만 원 미만	64.5	19.4	6.5	9.7	100.0
100만~200만 원 미만	64.4	17.8	11.1	6.7	100.0
200만~300만 원 미만	62.1	21.6	8.6	7.8	100.0
300만~400만 원 미만	55.9	25.4	6.8	11.9	100.0
400만~500만 원 미만	70.0	13.3	10.0	6.7	100.0
500만 원 이상	57.9	15.8	10.5	15.8	100.0
200만 원 미만	64.5	18.6	8.8	8.2	100.0
400만 원 이상	63.9	14.6	10.3	11.2	100.0

주 1) 기타는 외식·숙박, 교통, 의복·신발, 통신, 보건의료,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주류·담배 등의 평균치임.

2) 2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미만의 비중과 100만~200만 원 미만 비중의 평균치임. 400만 원 이상도 동일함.

3) 변수들 간 독립성 테스트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음(통계량: 44.407, p-value: 0.047).

○ 식음료, 외식 관련 소비항목 중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이 1순위로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17.0%,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육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16.0%, 곡물(쌀, 보리쌀, 콩) 11.7%,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10.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식 순위를 가장 평균한 결과,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육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18.3%,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14.8%,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9. 식음료, 외식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도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22.7	15.7	10.3	18.3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17.0	11.0	15.7	14.8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16.0	22.7	17.3	18.4
곡물(쌀, 보리쌀, 콩)	11.7	4.3	4.3	8.0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10.0	10.0	6.3	9.4
어개류 및 수산가공식품	5.3	10.3	5.0	6.9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빙과류, 꿀)	5.3	8.7	18.3	8.6
외식	5.0	2.0	5.7	4.1
과실 및 과실 가공식품(통조림)	4.7	11.0	5.7	6.9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1.3	1.3	5.3	2.0
유지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0.7	1.3	3.0	1.3
조미료·기타식품	0.3	1.7	3.0	1.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평균치는 1순위에 가중치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여 평균함.

- 식음료/외식 관련 소비품목별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가장 평균한 결과,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27.7%, 외식 27.3%,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27.0%,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조미료·기타식품의 경우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가장 평균한 결과 각각 23.4%, 22.1%로 상대적으로 심리적 고통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인 소비자의 경우 고통수준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8.8%로 나타난 데 비해, 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의 경우 26.6%로 극빈층 내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고통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식음료, 외식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

단위: %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가중 평균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	1.0	16.7	47.7	34.7	27.7
외식	0.3	2.0	19.0	45.0	33.7	27.3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0.0	2.0	21.3	46.3	30.3	27.0
육류 및 유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0.3	3.0	26.0	44.3	26.3	26.2
어게류 및 수산가공식품	0.3	1.3	28.0	49.3	21.0	26.0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병과류, 꿀)	1.0	5.0	25.0	41.7	27.3	26.0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0.0	2.0	31.0	52.7	14.3	25.3
과실 및 과실가공식품(통조림)	0.7	6.3	37.3	35.0	20.7	24.6
유지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0.3	5.0	44.7	37.7	12.3	23.8
곡물(쌀, 보리쌀, 콩)	1.0	4.7	45.3	37.3	11.7	23.6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0.7	8.7	40.0	39.7	11.0	23.4
조미료·기타식품	1.3	11.0	50.3	29.7	7.7	22.1

주: 가중평균치는 '매우 낮다'에 가중치 1, '낮다'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표 4-11. 소득별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

단위: %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계	가중 평균
100만 원 미만	-	0.0	12.9	38.7	48.4	100.0	29.0
100만~200만 원 미만	-	0.0	6.7	57.8	35.6	100.0	28.6
200만~300만 원 미만	-	1.7	15.5	43.1	39.7	100.0	28.0
300만~400만 원 미만	-	0.0	27.1	44.1	28.8	100.0	26.8
400만~500만 원 미만	-	3.3	23.3	50.0	23.3	100.0	26.2
500만 원 이상	-	0.0	10.5	73.7	15.8	100.0	27.0
200만 원 미만	-	0.0	9.8	48.2	42.0	100.0	28.8
400만 원 이상	-	1.7	16.9	61.8	19.6	100.0	26.6

주 1) 2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미만의 비중과 100만~200만 원 미만 비중의 평균치임. 400만 원 이상도 동일함.

2) 가중평균치는 '매우 낮다'에 가중치 1, '낮다'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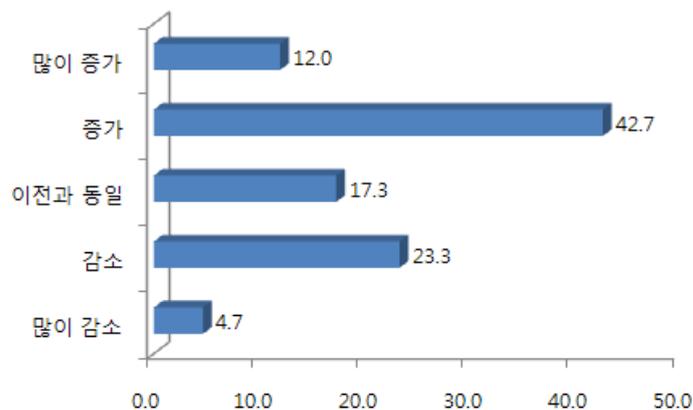
3) 변수들 간 독립성 테스트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음(통계량: 22.994, p-value: 0.084).

-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의 경우 실질물가가 2.8%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인식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언론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언론보도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2.2.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액 변화

- 올해 1~4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액 변화에 관해 ‘많이 증가’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54.7%로 ‘감소’나 ‘많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 28.0%보다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1. 가격 상승한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액 변화



- 식음료/외식 관련 소비지출액에 관해 품목별, 수준별로 응답한 비중을 가중 평균한 결과,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이 21.4,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21.4%, 곡물(쌀, 보리쌀, 콩) 21.3%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식음료/외식 관련 소비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단위: %

	많이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많이 증가	가중 평균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5.3	21.3	32.3	28.7	12.3	21.42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5.7	21.7	30.7	30.0	12.0	21.40
곡물(쌀, 보리쌀, 콩)	1.7	12.3	56.0	25.3	4.7	21.27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4.3	25.3	28.0	36.0	6.3	20.98
유지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3.7	13.0	60.7	19.0	3.7	20.40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8.7	29.7	25.7	27.0	9.0	19.87
과실 및 과실가공식품(통조림)	9.0	23.7	38.0	21.7	7.7	19.69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빙과류, 꿀)	11.3	29.3	23.0	26.0	10.3	19.64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8.3	20.7	43.7	22.7	4.7	19.64
조미료·기타식품	5.3	19.3	56.0	16.0	3.3	19.51
어개류 및 수산가공식품	8.7	28.7	32.0	25.7	5.0	19.31
외식	18.0	25.3	21.0	25.3	10.3	18.98

주: 가중평균치는 ‘많이 감소’에 가중치 1, ‘감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식음료/외식 관련 소비품목 가운데 물가상승의 심리적 고통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외식,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식품, 어개류 및 수산가공식품(이상 상위 5위) 등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액이 많이 증가한 품목으로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곡물, 곡물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이상 상위 5위) 등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심리적 고통수준이 높으면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낙농품 및 유가공식품 등임.
- 소득별,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품목에 대해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비해 심리적 고통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3. 소득별, 품목별 물가상승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수준

단위: %

	소득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가중 평균
낙농품 및 유가 공식품	200만 원 미만	-	0.0	9.8	48.2	42.0	28.8
	400만 원 이상	-	1.7	16.9	61.8	19.6	26.6
외식	200만 원 미만	-	3.2	17.6	43.3	35.9	27.5
	400만 원 이상	-	0.0	13.3	56.6	28.4	27.3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200만 원 미만	-	3.2	18.7	45.4	32.7	27.2
	400만 원 이상	-	4.3	21.2	47.0	27.5	26.5
육류 및 육가공 식품	200만 원 미만	-	3.2	16.5	42.9	37.4	27.6
	400만 원 이상	-	7.6	30.8	43.7	16.2	24.3
어개류 및 수산 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	0.0	26.2	46.5	27.2	26.7
	400만 원 이상	-	0.0	38.4	45.4	14.6	24.7
과자·당류식품	200만 원 미만	-	0.0	26.2	46.5	27.2	26.7
	400만 원 이상	-	0.0	38.4	45.4	14.6	24.7
곡물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	1.6	28.0	52.6	17.8	25.8
	400만 원 이상	-	5.0	29.8	50.6	14.6	25.0
과실 및 과실가 공식품	200만 원 미만	-	4.3	33.9	31.9	28.2	25.4
	400만 원 이상	-	5.3	39.4	33.2	22.2	24.8
유지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	1.1	33.3	45.4	20.2	25.6
	400만 원 이상	-	4.3	51.3	39.4	3.3	22.6
곡물	200만 원 미만	-	3.8	30.1	45.9	20.2	25.5
	400만 원 이상	-	5.0	53.9	28.4	7.6	21.9
차(커피)와 음료	200만 원 미만	-	1.6	29.7	49.1	19.6	25.8
	400만 원 이상	-	6.0	53.2	30.8	8.3	22.5
조미료·기타식품	200만 원 미만	-	1.6	29.7	49.1	19.6	25.8
	400만 원 이상	-	6.0	53.2	30.8	8.3	22.5

주: 가중평균치는 '많이 감소'에 가중치 1, '감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소득별, 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식품, 과자·당류식품, 곡물가공식품, 과실 및 과실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곡물, 차(커피)와 음료, 조미료·기타식품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커서 이들 품목이 저소득층에게 필수재인 것으로 보임.

표 4-14. 소득별, 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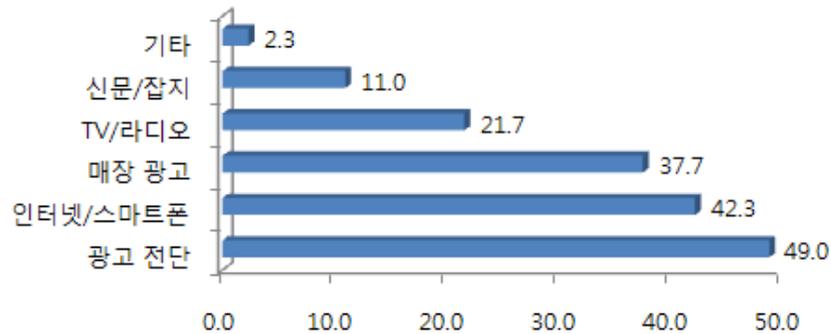
	소득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가중 평균
낙농품 및 유가 공식품	200만 원 미만	7.6	27.3	20.4	25.1	19.6	21.5
	400만 원 이상	1.7	14.6	41.8	34.4	7.6	22.1
외식	200만 원 미만	19.1	27.3	21.9	14.8	16.8	18.9
	400만 원 이상	17.2	15.3	26.5	32.7	8.3	20.0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200만 원 미만	7.1	21.3	29.7	23.5	18.5	21.7
	400만 원 이상	2.6	22.2	33.2	32.7	9.3	21.6
육류 및 육가공 식품	200만 원 미만	9.3	30.1	16.8	27.6	16.2	20.8
	400만 원 이상	1.7	37.7	33.4	21.2	6.0	19.5
어개류 및 수산 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14.7	19.7	31.8	20.8	13.0	19.8
	400만 원 이상	1.7	19.6	50.6	28.2	0.0	20.4
과자·당류식품	200만 원 미만	9.8	32.3	16.5	19.2	22.3	20.8
	400만 원 이상	11.9	31.8	29.8	20.5	6.0	18.5
곡물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7.7	23.9	23.7	28.5	16.2	21.4
	400만 원 이상	1.7	25.1	35.5	36.1	1.7	20.7
과실 및 과실가 공식품	200만 원 미만	9.2	24.5	30.8	26.2	9.3	20.1
	400만 원 이상	6.9	23.9	42.0	22.2	5.0	19.6
유지가공식품	200만 원 미만	5.9	18.1	37.8	26.7	11.4	21.3
	400만 원 이상	1.7	6.0	72.8	17.9	1.7	20.8
곡물	200만 원 미만	2.7	20.2	36.7	26.2	14.1	21.9
	400만 원 이상	0.0	11.9	75.2	12.9	0.0	20.1
차(커피)와 음료	200만 원 미만	8.2	20.2	31.3	26.2	14.1	21.2
	400만 원 이상	3.3	17.2	53.0	24.8	1.7	20.3
조미료·기타식품	200만 원 미만	2.7	20.7	47.7	18.6	10.3	20.9
	400만 원 이상	1.7	23.9	53.0	21.5	0.0	19.6

주: 가중평균치는 '많이 감소'에 가중치 1, '감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3.2.3. 물가상승에 대한 가격정보 활용

- 가격 및 매장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광고전단' 49.0%, '인터넷/스마트폰' 42.3%, '매장 내 광고' 37.7%, 'TV/라디오' 21.7% 등으로 나타남<그림 4-2>.

그림 4-2. 가격 및 매장 정보 습득 매체(중복응답)



-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예를 들어 어느 업체의 밀가루 혹은 설탕 가격 인상) 소비자의 반응에 관하여 ‘해당업체의 인상된 특정 식품의 구입을 감소시키고 타업체의 제품구매’로 응답한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고, ‘평소 구입하는 브랜드를 계속 구입’ 23.7%, ‘해당업체 대부분의 식품구입 감소, 타업체 제품구매’ 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들이 평소 구입하는 브랜드를 계속 구입하는 비중은 23.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표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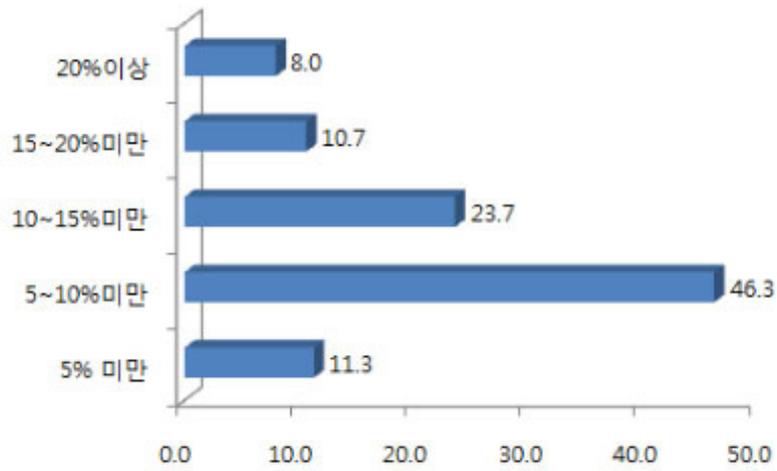
표 4-15.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 인상 시의 소비자 반응

단위: %

	구성비
해당업체의 인상된 특정 식품의 구입을 감소시키고 타업체의 제품구매	48.7
평소 구입하는 브랜드를 계속 구입	23.7
해당업체 대부분의 식품구입 감소, 타업체 제품구매	22.3
해당 품목의 구입을 전혀 안함	3.3
기타	2.0
계	100.0

- 특정 식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때 다른 대체 식품으로 변경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10% 미만’이 46.3%로 가장 높았고, ‘10~15% 미만’ 23.7%, ‘5% 미만’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가격 인상 수준별 대체제품으로의 변경 의향



## 제 5 장

---

### 대응 방향

#### 1. 전망

##### □ 중단기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세계적인 기상악화 등에 의한 생산 감소와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1/1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2.6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1/1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2.8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량이 생산량을 1,27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곡물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4.2억 톤, 기말 재고율은 0.9%포인트 낮은 18.6%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5-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 분	2010/11 (추정)	2011/12(전망)		증감률	
		2011.5	2011.6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생산량	2,187.67	2,274.22	2,264.59	3.5	-0.4
공급량	2,674.67	2,711.84	2,701.67	1.0	-0.4
소비량	2,237.59	2,272.05	2,277.25	1.8	0.2
교역량	272.51	274.63	274.21	0.6	-0.2
기말재고량	437.09	439.79	424.42	-2.9	-3.5
기말재고율	19.5	19.4	18.6	-	-

자료: 미 농무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악화 우려와 달러화 강세로 곡물에 대한 선물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7월 이후 러시아의 곡물 수출 재개와 최근의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하면서 향후 가격 하락 요인이 존재함. 그러나 미국의 흉수, 유럽의 가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 악화에 따른 파종 지연과 생산 감소로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기말재고율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표 5-2. 향후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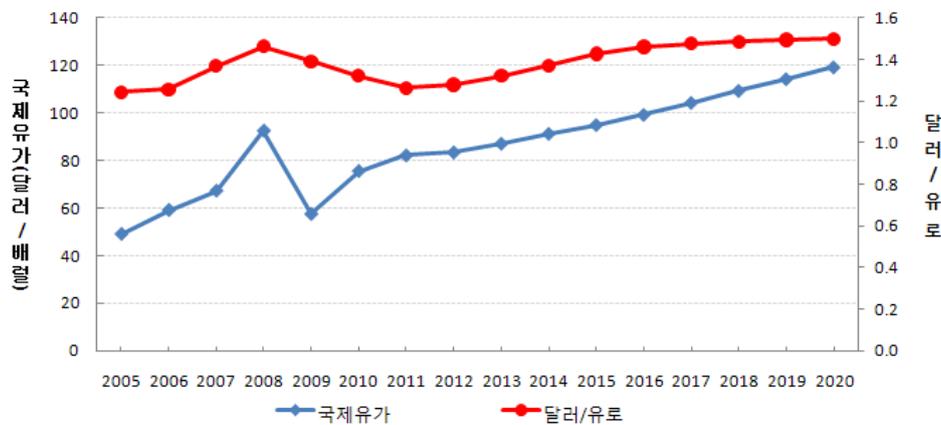
	공급 부문	수요 부문
상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흉수, 유럽 가뭄 등 기상 악화</li> <li>▪ 밀, 옥수수, 대두 재고율 하락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대두 수요 및 수입 증가</li> <li>▪ 미국의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li> </ul>
하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의 곡물 수출 재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곡물 선물투기 감소세</li> </ul>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관측 7월호, 2011.6.

## □ 환율 및 유가 전망

- FAPPRI와 Global Insight에 의하면, 국제유가와 달러/유로 환율은 2011년 이후에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는 2008년 배럴당 92.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 57.4달러/배럴로 하락하였음. 2010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0년 119.4달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달러/유로 환율은 2011년까지 하락하였음.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한 이후 2020년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 국제 유가 및 달러/유로 환율 전망



자료: EIA, Global Insight

## □ 장기 곡물 수급 전망

- FAPPRI와 Global Insight에 의하면, 대두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도 크게 하락한 후 2020/21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됨. 2010/11년 하락한 밀 기말재고율은 2011/12년 소폭 상승한 후 2013/14년부터 완만하게 하

락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2010/11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1/12년 소폭 상승한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5-3. 장기 주요 국제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ha, 백만 톤

		2009/10	2015/16	2020/21
밀	재배면적	226.66	226.21	227.16
	생산량	682.65	700.55	728.03
	소비량	652.26	698.96	726.41
	기말재고량	197.60	190.33	196.54
	기말재고율	30.3	27.2	27.1
옥수수	재배면적	156.68	161.12	161.89
	생산량	812.34	893.51	947.19
	소비량	815.01	892.43	945.44
	기말재고량	145.16	149.19	154.79
	기말재고율	17.8	16.7	16.4
대두	재배면적	101.86	105.80	108.74
	생산량	259.99	277.73	298.05
	소비량	238.55	277.49	297.75
	기말재고량	60.17	59.86	61.24
	기말재고율	25.2	21.6	20.6

자료: FAPRI, USDA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에 따르면, 국제곡물 가격은 2011/12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2010/11년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 대응 방향

- 세계의 농산물, 특히 곡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지구적 기상변화 때문에 변동성이 커 중장기적 곡물수급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바이오 에너지 수요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곡물수요는

증가하나 생산량 확대는 제한적이라 중장기 국제 곡물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세계 곡물수급의 불균형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을 촉발하기도 함. 밀가격 상승은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옥수수 시럽 가격을 상승시켜 각종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킴. 곡물가격 상승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축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 수입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식품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따라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 곡물재배를 적극 유도하여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차원에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외수입 원료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단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예를 들어 할당관세(quota tariff)정책은 일정기간 관세를 저율로 인하하거나 폐지하여 수입원가를 낮춤으로써 수입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정부에서도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수의 수입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의 도입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할당관세 도입의 효과는 아직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곡물, 원당 등 원료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라도 상당 물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국제가격이 안정될 때 물량을 정부가 공공기관이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함으로써 국제가

격 급등 시 방출할 수 있는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정부는 현재 쌀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원료농산물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집중되어 일부 국가의 수급여건 변동 시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장기 공급계약, 선물시장 활용 등 수입선과 수입방법을 다변화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 곡물 생산 및 유통기반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과거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시행착오를 거듭했음. 주요 곡물 생산국이나 수출국에 진출하여, 농경지 확보 및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 등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농업개발은 초기자본투자가 크고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농업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세계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사용에 대한 조정·제한,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곡물의 투기적 거래 제한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대한 미국 등의 보조지원정책의 감축과 곡물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규칙의 도입이 필요함.

## □ 국내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 활성화

- 국내 생산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제공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농경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휴경농지와 답리작 이용 증대를 통해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할 경우 생산기반 감소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며 국제 밀가격의 상승으로 기존의 보리 재배 농가들이 우리 밀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함. 우리 밀 주산예 정지에 도정소를 설치하여 우리 밀의 상품화와 전문적인 유통·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의 유희농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쌀 가공식품의 개발이나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의 개발 등도 수입 곡물 의존에 의한 식품물가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대책 강화

- 식료품·비주류음료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이 영향을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액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은 외식비를 크게 줄였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곡물 및 곡물가공품, 음료, 유지류, 채소류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품에 대한 소비량을 오히려 늘렸음.

-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식품보조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food stamp)제도<sup>6</sup>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푸드스탬프제도의 시행은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양개선을 도모한다는 순수한 공공복지의 증진이라는 목적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김성용, 2007). 푸드스탬프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생산증대효과, 부가가치증대 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여러 가지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됨. 또한 WTO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 가격 하락 완화에도 기여할 것임<sup>7</sup>.

#### □ 식품기업의 가격행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효과적 감시 체계 구축

- 식품기업, 특히 소재식품 등 자본력이 강한 분야일수록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이 경우 동종 분야의 기업 간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담합 여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monitoring)가 기업 간 암묵적 담합 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sup>8</sup>.

<sup>6</sup> 푸드스탬프(food stamp)제도는 저소득 가가로 하여금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196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임. 미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제도는 푸드스탬프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WIC,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CSFP 등이 있으나 푸드스탬프 제도의 지원규모가 가장 큼. 푸드스탬프 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미국인 15인당 1인, 1인당 월보조액은 약 8.8만 원(93달러)에 달함.

<sup>7</sup> 우리나라에서 푸드스탬프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식 급여전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sup>8</sup> 식품제조업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이 40% 이상인 과점시장으로 분류할 수 업종이 많음. 특히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유지류(대두유) 등의 소재식품과 아이스크림, 면류(라면) 등의 시장집중도가 높음.

- 기업 행동에 대한 정책당국의 감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기업별 판매가격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기업의 가격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소비자가 가격 및 매장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기존의 광고전단뿐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매장광고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식품관련 정보제공 경로를 소비자의 정보 습득 및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소비자는 특정 식품의 가격이 인상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 습득과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물가대책은 물론 식품기업의 가격정책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어 결국 물가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더불어 기업의 전략적 가격정책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공정거래와 물가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촉진되어야 함.

#### □ 국제곡물 및 가공식품의 수급 관측·모니터링 체계 구축

-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경우 관련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해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시로 해외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가격정보를 정부 및 국내 관련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가격 상승에 사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한 가지 예로 2008년 국제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만약 2007년 하반기에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을 통해 경보를 주고, 곡물 수입물량을 늘렸다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한석호·승준호(2011)에 의하면, 2007년 하반기에 2008년 상반기 수입물량의 20~30%를 미리 확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약 1,700억~2,500억 원의 수입액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sup>9</sup>.
- 곡물, 원당 등 수입농산물과 일부 국내농산물 수급 변동 및 국내외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지류 등 소재형 가공식품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측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전후방 연관기업, 정부, 소비자의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전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sup>9</sup> 곡물 수입량을 20~30% 늘릴 경우 저장, 보관, 가공 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미리 물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임.

## 부록 1

## 식음료/외식 소비량 변동률 추정

부표 1.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1분위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7,481	18,487	5.8	15,254	15,444	1.2
곡물가공품	13,210	13,733	4.0	11,527	11,473	-0.5
빵 및 떡류	11,056	12,297	11.2	9,647	10,273	6.5
곡물	41,747	44,517	6.6	36,428	37,190	2.1
육류	34,495	34,400	-0.3	30,100	28,739	-4.5
육류가공품	4,514	5,200	15.2	3,939	4,344	10.3
육류	39,009	39,600	1.5	34,039	33,083	-2.8
신선수산물	20,545	23,594	14.8	17,928	19,711	9.9
염건수산물	5,226	6,896	32.0	4,560	5,761	26.3
기타 수산물가공	3,317	4,084	23.1	2,894	3,412	17.9
어개	29,088	34,574	18.9	25,382	28,884	13.8
유제품 및 알	17,211	17,238	0.2	15,018	14,401	-4.1
유지류	2,398	2,684	11.9	2,092	2,242	7.2
과일 및 과일가공품	22,528	24,764	9.9	19,658	20,688	5.2
채소 및 채소가공품	25,393	30,492	20.1	22,158	25,474	15.0
해조 및 해조가공품	4,036	4,289	6.3	3,522	3,583	1.7
채소·해조	29,429	34,781	18.2	25,680	29,057	13.2
당류 및 과자류	11,041	12,390	12.2	9,634	10,351	7.4
조미식품	5,800	6,393	10.2	5,061	5,341	5.5
기타식품	5,237	5,879	12.3	4,570	4,911	7.5
조미료·기타식품	11,037	12,272	11.2	9,631	10,252	6.5
커피 및 차	4,630	5,105	10.3	4,040	4,265	5.6
주스 및 기타음료	4,564	5,742	25.8	3,983	4,797	20.5
외식비	111,997	101,498	-9.4	97,729	84,794	-13.2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부표 2.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2분위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5,447	15,769	2.1	13,479	13,174	-2.3
곡물가공품	14,887	16,905	13.6	12,990	14,123	8.7
빵 및 떡류	16,143	17,702	9.7	14,086	14,789	5.0
곡물	46,477	50,376	8.4	40,556	42,085	3.8
육류	41,990	41,395	-1.4	36,640	34,582	-5.6
육류가공품	7,395	9,107	23.2	6,453	7,608	17.9
육류	49,385	50,502	2.3	43,093	42,190	-2.1
신선수산물	21,863	23,266	6.4	19,078	19,437	1.9
염건수산물	6,202	7,760	25.1	5,412	6,483	19.8
기타 수산물가공	4,723	5,942	25.8	4,121	4,964	20.4
어개	32,788	36,968	12.7	28,611	30,884	7.9
유제품 및 알	25,189	26,584	5.5	21,980	22,209	1.0
유지류	2,875	2,757	-4.1	2,509	2,303	-8.2
과일 및 과일가공품	29,126	32,765	12.5	25,415	27,373	7.7
채소 및 채소가공품	26,751	33,301	24.5	23,343	27,820	19.2
해조 및 해조가공품	4,371	5,084	16.3	3,814	4,247	11.4
채소·해조	31,122	38,385	23.3	27,157	32,068	18.1
당류 및 과자류	16,734	20,638	23.3	14,602	17,241	18.1
조미식품	6,154	7,591	23.4	5,370	6,342	18.1
기타식품	7,318	8,128	11.1	6,386	6,790	6.3
조미료·기타식품	13,472	15,719	16.7	11,756	13,132	11.7
커피 및 차	5,460	6,776	24.1	4,764	5,661	18.8
주스 및 기타음료	7,442	8,823	18.6	6,494	7,371	13.5
외식비	206,359	210,725	2.1	180,069	176,044	-2.2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부표 3.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3분위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7,177	15,889	-7.5	14,989	13,274	-11.4
곡물가공품	16,168	18,094	11.9	14,108	15,116	7.1
빵 및 떡류	19,769	21,330	7.9	17,250	17,820	3.3
곡물	53,114	55,313	4.1	46,347	46,210	-0.3
육류	48,057	46,378	-3.5	41,935	38,745	-7.6
육류가공품	9,483	10,997	16.0	8,275	9,187	11.0
육류	57,540	57,375	-0.3	50,209	47,932	-4.5
신선수산물	22,743	24,701	8.6	19,846	20,636	4.0
염건수산물	6,706	7,571	12.9	5,852	6,325	8.1
기타 수산물가공	6,012	6,533	8.7	5,246	5,458	4.0
어개	35,461	38,805	9.4	30,943	32,419	4.8
유제품 및 알	29,473	29,408	-0.2	25,718	24,568	-4.5
유지류	2,951	2,752	-6.7	2,575	2,299	-10.7
과일 및 과일가공품	34,250	37,597	9.8	29,887	31,409	5.1
채소 및 채소가공품	28,351	33,223	17.2	24,739	27,755	12.2
해조 및 해조가공품	4,993	4,888	-2.1	4,357	4,084	-6.3
채소·해조	33,344	38,111	14.3	29,096	31,839	9.4
당류 및 과자류	20,907	23,496	12.4	18,243	19,629	7.6
조미식품	6,607	7,602	15.1	5,765	6,351	10.2
기타식품	9,173	9,391	2.4	8,004	7,845	-2.0
조미료·기타식품	15,780	16,993	7.7	13,770	14,196	3.1
커피 및 차	6,976	8,193	17.4	6,087	6,845	12.4
주스 및 기타음료	8,761	9,732	11.1	7,645	8,130	6.4
외식비	272,017	278,257	2.3	237,362	232,462	-2.1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부표 4.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4분위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5,150	15,314	1.1	13,220	12,794	-3.2
곡물가공품	18,263	18,636	2.0	15,936	15,569	-2.3
빵 및 떡류	23,455	24,894	6.1	20,467	20,797	1.6
곡물	56,868	58,844	3.5	49,623	49,160	-0.9
육류	54,121	55,926	3.3	47,226	46,722	-1.1
육류가공품	10,468	12,148	16.0	9,134	10,149	11.1
육류	64,589	68,074	5.4	56,360	56,871	0.9
신선수산물	24,206	23,824	-1.6	21,122	19,903	-5.8
염건수산물	7,467	8,323	11.5	6,516	6,953	6.7
기타 수산물가공	6,251	6,810	8.9	5,455	5,689	4.3
어개	37,924	38,957	2.7	33,092	32,546	-1.7
유제품 및 알	32,384	34,229	5.7	28,258	28,596	1.2
유지류	3,339	3,189	-4.5	2,914	2,664	-8.6
과일 및 과일가공품	41,075	43,088	4.9	35,842	35,997	0.4
채소 및 채소가공품	31,249	34,434	10.2	27,268	28,767	5.5
해조 및 해조가공품	5,208	5,341	2.6	4,545	4,462	-1.8
채소·해조	36,457	39,775	9.1	31,812	33,229	4.5
당류 및 과자류	22,676	26,325	16.1	19,787	21,992	11.1
조미식품	7,267	7,768	6.9	6,341	6,490	2.3
기타식품	9,468	10,770	13.8	8,262	8,997	8.9
조미료·기타식품	16,735	18,538	10.8	14,603	15,487	6.1
커피 및 차	7,184	8,949	24.6	6,269	7,476	19.3
주스 및 기타음료	10,020	10,658	6.4	8,743	8,904	1.8
외식비	328,630	336,297	2.3	286,763	280,950	-2.0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부표 5. 식음료/외식 소비지출액 증감률(5분위 소비자)

단위: 원, %

품목	명목			실질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10,1/4 지출액	'11,1/4 지출액	증감률 (a)
곡물	15,224	15,623	2.6	13,284	13,052	-1.8
곡물가공품	19,742	21,669	9.8	17,227	18,103	5.1
빵 및 떡류	27,577	30,097	9.1	24,064	25,144	4.5
곡물	62,543	67,389	7.7	54,575	56,298	3.2
육류	65,993	65,103	-1.3	57,586	54,388	-5.6
육류가공품	12,600	13,438	6.7	10,995	11,226	2.1
육류	78,593	78,541	-0.1	68,580	65,615	-4.3
신선수산물	28,115	31,194	11.0	24,533	26,060	6.2
염건수산물	9,023	11,171	23.8	7,873	9,332	18.5
기타 수산물가공	6,950	7,833	12.7	6,065	6,544	7.9
어개	44,088	50,198	13.9	38,471	41,937	9.0
유제품 및 알	38,243	41,414	8.3	33,371	34,598	3.7
유지류	4,263	3,916	-8.1	3,720	3,272	-12.1
과일 및 과일가공품	54,205	58,581	8.1	47,299	48,940	3.5
채소 및 채소가공품	34,744	40,590	16.8	30,318	33,910	11.8
해조 및 해조가공품	6,138	6,496	5.8	5,356	5,427	1.3
채소·해조	40,882	47,086	15.2	35,674	39,337	10.3
당류 및 과자류	26,529	30,227	13.9	23,149	25,252	9.1
조미식품	7,792	8,940	14.7	6,799	7,469	9.8
기타식품	11,855	12,452	5.0	10,345	10,403	0.6
조미료·기타식품	19,647	21,392	8.9	17,144	17,871	4.2
커피 및 차	8,219	10,720	30.4	7,172	8,956	24.9
주스 및 기타음료	12,187	12,776	4.8	10,634	10,673	0.4
외식비	433,049	411,410	-5.0	377,879	343,701	-9.0

주 1)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물가는 소비자물가조사(2005=100)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구분에 대응되도록 지출액의 품목을 구분하여 이용함.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부록 2

### 소비자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에 대한 파급영향 분석」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문의 주요내용은 식료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 소비행동, 정보활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정성껏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제시된 문항들 하나하나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얻은 개별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혹시 설문을 하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이용선: 02-3299-4320, 011-4783-6266

연구원 정학균: 02-3299-4248, 016-693-8247

#### <SQ. 응답자 정보>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 ☐ 조사중단	여자
①	②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 10대 이하 조사중단

SQ3.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SQ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중단	기혼
①	②

SQ5. 귀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

문1. 주부님께서 느끼시기에 올해(1~4월) 아래의 소비품목 가운데 어느 부류(품목)의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특히 많이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식료품·비주류음료 | ② 주류·담배            |
| ③ 의복·신발     | ④ 주거 및 수도·광열(공공요금) |
| ⑤ 가구집기·가사용품 | ⑥ 보건의료             |
| ⑦ 교통        | ⑧ 통신               |
| ⑨ 교양·오락     | ⑩ 교육               |
| ⑪ 외식·숙박     |                    |

문2. 주부님께서서는 올해(1~4월) 아래의 소비품목 가운데 어느 부류(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식료품·비주류음료 | ② 주류·담배            |
| ③ 의복·신발     | ④ 주거 및 수도·광열(공공요금) |
| ⑤ 가구집기·가사용품 | ⑥ 보건의료             |
| ⑦ 교통        | ⑧ 통신               |
| ⑨ 교양·오락     | ⑩ 교육               |
| ⑪ 외식·숙박     |                    |

문3. 주부님께서서는 올해(1~4월) 다음의 식음료, 외식 관련 소비항목 중 어느 항목(품목)의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특히 많이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곡물(쌀, 보리쌀, 콩)
- ②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 ③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 ④ 어패류 및 수산가공식품
- ⑤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 ⑥ 유지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 ⑦ 과일 및 과일가공식품(통조림)
- ⑧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 ⑨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빙과류, 꿀)
- ⑩ 조미료·기타 식품
- ⑪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 ⑫ 외식

문4. 주부님께서는 올해(1~4월) 식음료, 외식 관련 소비항목별로 물가상승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 수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가. 곡물(쌀, 보리쌀, 콩)	①	②	③	④	⑤
나.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①	②	③	④	⑤
다.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①	②	③	④	⑤
라. 어패류 및 수산가공식품	①	②	③	④	⑤
마.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①	②	③	④	⑤
바. 유지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①	②	③	④	⑤
사. 과일 및 과실가공식품(통조림)	①	②	③	④	⑤
아.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①	②	③	④	⑤
자.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빙과류, 꿀)	①	②	③	④	⑤
차. 조미료·기타 식품	①	②	③	④	⑤
카.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①	②	③	④	⑤
타. 외식	①	②	③	④	⑤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액 변화>

문5. 주부님께서는 올해(1~4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 ① 많이 감소    ② 감소    ③ 이전과 동일    ④ 증가    ⑤ 많이 증가

문6. 주부님께서는 올해(1~4월) 식음료, 외식 관련 소비지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많이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많이 증가
가. 곡물(쌀, 보리쌀, 콩)	①	②	③	④	⑤
나.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①	②	③	④	⑤
다.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	①	②	③	④	⑤
라. 어패류 및 수산가공식품	①	②	③	④	⑤
마.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①	②	③	④	⑤
바. 유지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①	②	③	④	⑤
사. 과일 및 과실가공식품(통조림)	①	②	③	④	⑤
아. 채소·해조 및 그 가공품	①	②	③	④	⑤
자. 과자·당류식품(비스킷, 스낵, 사탕, 빙과류, 꿀)	①	②	③	④	⑤
차. 조미료·기타 식품	①	②	③	④	⑤
카. 차(커피)와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①	②	③	④	⑤
타. 외식	①	②	③	④	⑤

### <물가상승에 대한 가격정보 활용>

문7. 주부님은 가격 및 매장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십니까(중복응답 허용)?

- ① 인터넷/스마트폰    ② TV/라디오    ③ 광고 전단  
 ④ 신문/잡지    ⑤ 매장 광고    ⑥ 기타(        )

문8과 문9는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밀가루 혹은 설탕 가격인상)를 가정하고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8. 주부님께서 특정 업체에서 특정 식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① 특정 업체의 인상된 특정 식품의 구입을 감소시키고 타 업체의 제품 구매  
 ② 특정 업체의 대부분의 식품 구입을 감소시키고 타 업체의 제품 구매  
 ③ 평소 구입하는 브랜드를 계속 구입  
 ④ 해당 품목의 구입을 전혀 안함  
 ⑤ 기타(\_\_\_\_\_)

문9. 주부님께서서는 특정 식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때 다른 대체 식품으로 변경하십니까?

- ① 5% 미만 ② 5~10% 미만 ③ 10~15% 미만 ④ 15~20% 미만 ⑤ 20% 이상

<응답자 정보 II>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초 정보 관련된 문항입니다.

DE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이상
①	②	③

DE2. 귀하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고 문헌

- 김기욱, 이승신. 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김병률 등. 2008.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 이계임, 김철민. 2003. “미국 푸드스탬프 제도의 효과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농업경영·정책연구 30(4): 579-599.
- 김성용. 2007.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김성훈, 김배성. 2010. “국제원료농산물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농업전망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김배성. 2009. “곡물가공품 가격의 반응시차와 비대칭적 가격전이분석.” 농촌경제 32(1): 21-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숙향, 김혜선. 2004. “소비자물가변화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의 상호작용 - 준이상수요 체계(LA/AIDS) 모델로 추정-. 소비문화연구 7(4): 129-145.
- 김정현, 최현자. 2003.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3(4): 269-292.
- 농업관측센터. 2011. 농업관측 국제곡물 7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명환. 201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연경. 2001.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이성림. 2007. “음식물 물가 변동과 가계의 음식물 지출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학연구 18(4): 67-91.
- 이용선 등. 2008.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등. 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 승준호. 2011.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국내물가 파급영향.” 농정연구속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재환. 2009. “GMO 표시제 강화로 인한 물가 상승시 소비자의 지불의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3): 338-344.
- 황은애, 이승신. 199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8(8):117-132.



---

정책연구보고 P147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6.

발 행 2011. 6.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mailto:cree1775@hanmail.net)

---

ISBN : 978-89-6013-253-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